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

-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 순 덕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
-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중심으로 -

강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 순 덕

인 준 서

신순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10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민속극 제재 중 수록 빈도가 높은 <봉산탈춤>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출발은 <봉산탈춤>이 한국 문학사의 전통을 계승한 구비문학의 특징이 반영된 문학작품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살피고, <봉산탈춤>이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제재인지 확인했다.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봉산탈춤>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행지식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교육 방향을 살피기 위한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봉산탈춤>은 가면극으로 재담과 노래, 춤, 장단으로 구성된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에 반영되어야 할 학습 내용은 공연 예술의 특징이다. 또한 <봉산탈춤>은 구비문학으로 능동적인 이해와 감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수업 원리가 반영될 때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모색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의 제재는 문법, 듣기, 말하기 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 주가 된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이었다. 그러나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봉산탈춤>은 문학 영역과 연계시킨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여전히 ‘듣기’ 영역만을 성취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활동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에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의 특징이 반영된 교수-학습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그것을 반영한 수업 지도안을 제시했다. 수업 지도안은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 제6과장 양반춤을 제재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반영시켜 3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봉산탈춤>에 대한 선행지식을 마련하는 것도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적 관습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연 예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연 실황을 담은 영상 자료를 통해 가면극

전승자의 연행을 관찰하는 활동이나 공연을 위한 사설을 개작해서 실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무대극이나 판소리 사설과 연계시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봉산탈춤>과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살피는 것은 한국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모둠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평가도 활동 중에 학습자들끼리 이루어지는 동료 평가와 교사의 평가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 마련한 수업 지도안은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했지만 수업 실연은 직접 해 보지 못했음을 밝힌다. 또한 교과서 수록 빈도가 높은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다른 민속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살피지 못했다. 다만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민속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주요어 : 민속극, 가면극, 봉산탈춤,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공연예술의 언어적 관습, 공연 예술의 특징.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예비적 고찰	13
1. 민속극과 <봉산탈춤>	13
2. <봉산탈춤>의 유래와 구성 및 내용	18
3.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	32
III. <봉산탈춤>의 교육 현황	39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본 <봉산탈춤>	39
2.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본 <봉산탈춤>	43
3. 현행 교육 현황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55
IV.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와 실제	57
1. 학습자 중심 교육 원리	59
2. <봉산탈춤> 교수-학습 지도안	62
1) 제재 선정의 이유와 지도상의 유의점	62
2) 학습 목표	63
3) 차시별 교수-학습 절차	65
4) 1차시 수업의 운영	66
5) 2차시 수업의 운영	73
6) 3차시 수업의 운영	78
7) 교수-학습의 기대 효과	85

V. 결론	-----	86
참고문헌	-----	89
ABSTRACT	-----	92

표 목 차

<표 1> <봉산탈춤> 과장별 내용과 갈등 양상 파악 -----	23
<표 2> <봉산탈춤>과 무대극의 공연 예술적 특징의 차이 -----	36
<표 3>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수록 단원의 학습 목표와 교육 내용 -----	39
<표 4>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수록 교과서 단원 내용--	41
<표 5> 성취기준으로 본 고등국어 <봉산탈춤> 교과서 수록 현황----	45
<표 6> 국어 교과서에 <봉산탈춤> 일부가 수록 된 사례-----	48
<표 7> 10학년 ‘듣기’영역 및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49
<표 8>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50
<표 9> 10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51
<표10>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단원 검토-----	53
<표11>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학습원칙-----	59
<표12> 차시별 교수-학습 절차 -----	65

I. 서론

1. 연구 목적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아울러 국어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여러 가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교과서를 통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과정을 익히는 것은 경험의 깊이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준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단일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그 종류도 16종으로 늘어났다. 국어 교과서가 그 숫자만큼 다양한 제재와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교과서에 적합한 제재 선정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교과서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서 출발했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道具)교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용의 원리뿐만 아니라, 국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을 학습함은 물론 한국적인 사고와 표현을 학습하는 문화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기르는 교과이기도 하다.¹⁾ 이것은 국어 과목은 국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능적인 과목일 뿐만 아니라 국어로 표현된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조적인 능력도 함양시켜주는 과목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어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려면 교과서에 수록되는 제재 선정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윤여탁은 ‘국어 교과서가 다른 교과의 교과서와 변별되는 고전적이고 정전(正田)적인 글을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 자료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²⁾고 했다. 국어 교과서로 배운 글을 통해 학습자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려면 교과서에 수록되는 제재 선정 못지않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제재를 찾던 중 구비문학을 살피게 되었다.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을 의미하고 ‘글로 된 문학’인 기록문학과 구별된다.³⁾ 구비문학은 말로 존재하며, 말로 전달되고, 말로 전승되는 문학이기 때문

1) 윤여탁,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선청어문 36, 2008, 532쪽.

2) 위의 논문, 545~546쪽.

에 기록문학보다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문학이다. 따라서 구비문학을 바탕으로 기록문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은 말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며 일회적이다. 말로 전달되기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전달이 가능하며 대량 전달이나 그대로의 보존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승이 가능한데 전승은 변화를 내포한 보존이다.⁴⁾

김기창은 ‘구비문학은 민중의 신앙, 관습, 의식, 가치관을 반영하며, 한 민족이 지닌 문학적 창조력의 바탕으로서 여러 형태의 기록문학을 산출하는 데 근간이 되는 민족문학, 민중문학이다. 여기에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가 포함 된다.’⁵⁾고 했다. 기록문학이 작가나 기록자에 의해 문자로 정착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구비문학은 구전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에 의해 첨삭되고 개작되는 변이성을 가지게 되므로 민중의 정신이나 사상이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문학이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갖는다면 구비문학은 구연자와 청자의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연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비문학은 오랜 시간을 경과해 오는 과정에서 변화를 갖기 때문에 역사성을 강하게 내포할 수 있다. 이처럼 구비문학은 문학이면서도 읽기의 대상인 기록문학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와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은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단순히 독서의 대상으로서의 구비문학이 된다.⁶⁾ 즉, 구비문학의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기록문학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뜻이다.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구비문학의 제재 선정은 물론이고 교수-학습 방안도 구비문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문학과는 달라야 한다. 김기창은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 수용 양상 연구」에서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구비문학 제재 선정 기준을 ‘① 각 갈래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② 전승 집단인 우리 민족의 생활, 사상, 감정, 주체성, 의지가 잘 나타나는 작품. ③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⁷⁾이라고 했다.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의 하나인 민속극은 민중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연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들의 삶에 점점 더 밀착되었으며, 기본 갈등구조 또

3)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0, 19쪽.

4) 구비문학의 개념과 특징은 장덕순 외, 위의 책을 토대로 마련한 지식임을 밝힌다.

5) 김기창 「구비문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국제어문, 1991.

6) 이경우, 「고등학교 구비문학 교육 연구」, 교육개발, 2000.

7)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 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한 당시의 사회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민속극이 당시 향유계층의 삶을 소재로 하고 그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주제를 구현한 문학 갈래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삶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극은 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치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내용을 통해 민속극이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재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민속극 중 <봉산탈춤>은 5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후 2007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까지 꾸준히 빠지지 않고 다뤄지고 있는 교과서 제재이다. 이것은 <봉산탈춤>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봉산탈춤>은 교과서에서 구비문학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어떤 양상으로 수록되었고,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도 연결시켜 검토해야 한다. 민속극인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될 때는 기록문학의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구비문학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봉산탈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다른 민속극 학습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보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비판적 국어 능력은 언어활동의 반복에 의한 숙달보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향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⁹⁾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제재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교수-학습 활동 안에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으로 <봉산탈춤>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제재 선정(‘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부합하는 작품인지, 그렇다면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교과서에서 실현하고 있는지(‘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봉산탈춤>이 수록된 교과서를 분석해서 교수-학습 활동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겠다.

8) 조은정, 「봉산탈춤 교육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쪽.

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2』, 2008, 16쪽.

2. 선행 연구 검토

<봉산탈춤>이 민속극의 제재로 처음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다.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에 수록되면서 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연구와 공연 예술적 특징을 반영한 학습 지도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연구, 또는 그 두 가지를 반영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산탈춤>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봉산탈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춤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특징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봉산탈춤>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준 연구로는 조동일의 『탈춤의 역사와 원리』, 김옥동의 『탈춤의 미학』, 전경옥의 『한국 가면극 : 그 역사와 원리』, 『민속극』, 서연호의 『한국가면극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봉산탈춤>에 한정된 자료라기보다는 탈춤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하는 연구서들이다.¹⁰⁾ 이 연구서들은 <봉산탈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다양한 수업을 모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민속극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한 박진태¹¹⁾의 논문은 비록 대학과 대학원에서 다뤄질 민속극 교육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민속극의 성격과 교육방법을 이해하는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본고는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적용한 연구 논문 위주로 살피기로 했다. 앞서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크게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연구와 공연 예술적 특징을 반영한 학습 지도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봉산탈춤>의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04년 이석규¹²⁾는 <봉산탈춤>의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의 예술성과 익살성을 극대화한 대사의 표현 방식에 주목했다. <봉산탈춤>에 사용된 언어 사용 현상은 한문 투가 30%이고 나머지 70%는 고유어로 표현되었다고 분석했다. 한문 투는 문어체로 표현하지만 우리말에 동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10) 서연호는 ‘탈은 한자어 가면(假面)에 대한 고유어이고, 탈춤은 가면무극(假面舞劇)의 고유어이다’라고 했다. 서연호, 『한국가면극연구』, 월인, 2002, 41쪽. 즉, 가면(탈)을 도구로 하는 연희를 ‘가면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탈춤’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가면극, 탈춤, 탈놀이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정리는 ‘II-1.민속극과 <봉산탈춤>’을 검토하는 장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

11) 박진태, 「민속극 교육론」, 한국구비문학회 6집, 1998.

12) 이석규, 「봉산탈춤의 언어 사용 연구」, 인문언어 6, 2004.

있고, 고유어는 구어체로 표현되고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우리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했다. 이석규의 논문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대본을 통해 언어의 특징과 그것이 주는 효과를 살필 수 있는 연구자료였다.

2004년 최용희¹³⁾는 <봉산탈춤> 노장과장의 극적 전개와 진행 과정에서 비언어적 상징과 요소들이 의사소통 행위에 미치는 의미들을 분석·고찰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분류 기준을 신체언어, 신체적 접촉, 공간적 행위, 신체적 특징, 의사 언어, 시간적 행위, 집단 특성으로 삼았다. 이것은 <봉산탈춤>이 공연되어질 때 문자언어나 음성언어 못지않게 비언어적인 상징과 의미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05년 김영순·김정은¹⁴⁾은 <봉산탈춤> ‘노장과장’에서 나타난 고갯짓을 중심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반복, 상반, 보완, 강조, 대체, 규제 기능으로 분류해서 고찰했다. 이 연구는 <봉산탈춤>을 읽는 텍스트로 규정해서 비언어적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읽기를 통해 문화교육 분야, 특히 민속극인 <봉산탈춤>과 같은 ‘탈춤 읽기’에 활용하려는 의도에 시사점이 있다.

2011년 함성민¹⁵⁾은 <봉산탈춤>과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텍스트가 구술성과 오락성, 사회 질서를 뒤엎는 웃음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습자가 <무한도전>을 통해 <봉산탈춤>을 이해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해,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민속극을 낯설어하는 고등학생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끌게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은 있다. 다만 <봉산탈춤>과 <무한도전>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연구자도 인정한 것처럼 매체의 특징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2012년 박선영¹⁶⁾은 <봉산탈춤>의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고, <봉산탈춤>에 나타난 언어적 관습의 특징적인 표현과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민속극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

13) 최용희, 「가면극의 비언어적 상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봉산탈춤 노장과장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4) 김영순·김정은, 「봉산탈춤 노장과장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연구」,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15) 함성민, 「오락프로그램을 통한 전통극 교수·학습의 한 사례-〈봉산탈춤〉과 〈무한도전〉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16) 박선영,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한 〈봉산탈춤〉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에 적용하려는 연구였다.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을 반영한 수업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신지호¹⁷⁾는 제5차 교육 과정 개편 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하)에 수록된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고찰했다. 연구자도 밝혔듯이 <봉산탈춤> 개론을 정리한 채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봉산탈춤>과 같은 민속극을 제재로 한 작품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때 <봉산탈춤>에 대한 개론은 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선행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론의 내용에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교사가 수업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교사가 민속극의 특징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1992년 공정녀¹⁸⁾는 5차 교육과정기에 민속극의 제재인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탈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품 감상을 위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양반과장’을 분석할 때, 수업 방향을 모색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비지식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2001년 박기혁¹⁹⁾은 전통 탈춤과 서양 연극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공연 예술적인 특징이 교수-학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학습 방법은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과제 분담 협동학습과 컴퓨터 활용 수업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봉산탈춤>에 적용하였다. 완성된 과제는 HTML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모듈별 발표를 통해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것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인식하고 있고,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을 <봉산탈춤>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2년 양영선²⁰⁾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하는 희곡 교육의

17) 신지호, 「봉산 탈춤 지도 내용 고찰」, 한국어문교육, 1991.

18) 공정녀, 「‘봉산탈춤’ 지도에 대하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9)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문학의 지도방안 연구 - ICT와 협동학습을 활용한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0) 양영선, 「전통희곡 교육방법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내용으로는 ‘희곡 이론 중심의 선행교육’, ‘무분별한 입체낭독’, ‘지나친 창작 교육으로 인한 부담감 가중’을 들고 있다. 그리고 5차 교육과정기에 등장한 <봉산탈춤>을 전통 희곡으로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연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 모둠 활동을 통해 희곡에 나타난 대사와 행동을 분석해서 등장인물을 파악하게 한 점, 매체를 활용해 전통 희곡의 연극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연 예술적인 특징이 수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선행 연구 검토 자료에서 ‘민속극’이라는 명칭은 장르 교육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서 희곡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봉산탈춤>을 전통 희곡으로 보고, 근대 희곡과 나눈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희곡 교육방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공연 예술적 특징을 전통 희곡 안에 묶어서 설명하다보니 <봉산탈춤>과 같은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2005년 허지윤²¹⁾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가면극 대본에 있는 언어 자료를 국어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면극에 드러나는 풍자성을 활용해 현대 가면극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학생 중심의 협동적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상호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봉산탈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과 공연 예술적인 특징이 모두 반영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보인 연구였다.

2007년 이은영²²⁾은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봉산탈춤>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이 각자 인터넷을 이용해 미리 <봉산탈춤>에 관한 기초 자료를 학습한 후에 웹 커뮤니티를 통해 토의·토론을 거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발표를 거쳐 수정을 해서 완성이 된 자료를 웹상에 올려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업 모형이지만 본인도 지적했듯이 자료를 정리하고 재조직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오히려 수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11년 조은정²³⁾은 민속극의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으로 역할

2002.

21) 허지윤, 「가면극 지도 방안 연구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2) 이은영,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구비문학 교육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놀이를 통한 민속극 재구성 방법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이 모둠원들과 역할놀이를 민속극을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민속극의 원리를 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수업 모형이다.

2012년 최정아²⁴⁾는 <봉산탈춤>에 나타난 구술성과 카니발적 성격을 살려 학생이 중심이 되어 탐구과정이 드러나는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봉산탈춤>의 구비문학적 측면을 파악해 독해 위주의 기록문학과 같은 수업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매체를 활용해 학습자에게 구비문학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봉산탈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국어 교과와 연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 표현의 이해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제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록문학에 접근하는 수업 방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연 예술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해 <봉산탈춤>에 대한 예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 자료와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교과서에 수록된 채록 대본을 분석하는 수업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적 특징과 공연 예술적 특징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봉산탈춤>에 사용되는 언어는 공연 예술을 전제로 마련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 안에서 언어 표현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민속극인 <봉산탈춤>은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 치우치지 말고 학습자의 활동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고 학습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목표한 수업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가 적용된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봉산탈춤>은 국어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서 통합학습을 하도록 제시한 교육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음악과 무용, 체육 교과와 통합학

23) 조은정, 「<봉산탈춤> 교육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4) 최정아,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 연구 - 구술성과 카니발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습을 시도한 사례들은 <봉산탈춤>이 국어 교과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계될 때 새로운 수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민속극이 종합예술 형태이므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안에서 문학 교육의 일환으로 민속극 교육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 자료 위주로 살펴보았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서 <봉산탈춤>은 5차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봉산탈춤>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2011년도 새롭게 간행된 10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었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교과서는 16종으로 늘어났고, <봉산탈춤>은 그 중 11종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다. 이것은 계속 바뀌는 교육 과정 안에서도 <봉산탈춤>이 중요한 교과서 제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내용이나 표현 뿐 아니라 가치관, 민족적인 정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검증이 된 제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교과서 지면상 다양한 민속극을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검증된 제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민속극 제재를 수록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속극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

최미숙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재 선정의 원칙은, 우선 학습 목표에 적합한 제재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학습 목표에 맞는 제재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학습 목표에 맞는 제재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기는 하지만, 선정한 제재가 가치관, 민족적인 정서, 문학적인 측면 등에서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제재로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²⁵⁾라고 했다. <봉산탈춤>은 전체 7과장²⁶⁾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는 교과서 제재는 7과장 전체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과장만 선별해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재로 수록된 과장이 최미숙이 말하고 있는 제재 선정의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

25) 최미숙, 「국어 교과서 제재 선정 및 수정 방안 연구」, 한국독서학회, 2000, 224쪽.

26) <봉산탈춤> 전체 7과장에 대한 내용은 ‘Ⅱ-2 봉산탈춤의 유래와 구성 및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아울러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한 과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교과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수록하지 못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박진태는 문학적 관점에서 ‘문학 교육-구비문학 교육-민속극 교육’을 위계화²⁷⁾하여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이것에 의하면 민속극 교육은 그 뿌리를 문학 교육에 두고 있다. 하지만 민속극은 개인에 의해 창작된 기록 문학이 아니라 공동 창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비문학이다. 그러나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될 때는 구전으로 전승된 대사를 채록한 대본으로 수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문학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 대본은 구비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공연장소, 상황, 관중의 개입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채록 대본은 교과서 영역 어디에 해당하는지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봐야 한다. 살펴본바 <봉산탈춤>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에서 ‘극문학(연극, 영화, 드라마)’에 속한다.²⁸⁾ <봉산탈춤>은 극문학 중에서 연극에 해당한다. 하지만 <봉산탈춤>을 객석과 무대를 구분해서 공연하는 무대극을 학습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봉산탈춤>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공연 예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민속극의 제재 중 교과서 수록 빈도가 높은²⁹⁾

27) 박진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교육」, 비교민속학회, 2003, 247쪽.

28)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영역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에서 문학 영역을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연극, 영화, 드라마), 수필·비평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문학 영역의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에서 시(동시), 소설(동화, 이야기), 희곡(극본), 수필을 제시한 것과 다른 점이다. 즉, 문학의 4대 갈래를 이르는 용어로 기존의 ‘희곡(극본)’이라는 용어에서 ‘극(연극, 영화, 드라마)’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이다.

29)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0학년 민속극 수록 양상은 다음과 같다.

고등국어 상(‘상’으로 표시), 고등국어 하(‘하’로 표시).

지학 (박갑수 → ‘박’으로 표시), 지학 (방민호 → ‘방’으로 표시), 천재 (김대행 → ‘대’로 표시),

천재 (박영목 → ‘박’으로 표시), 천재 (김종철 → ‘김’으로 표시)

교과서	해냄	교학	금성	두산	디 딤 돌	미 래 엔	비상	유 웨 이	종 은 책	지학 (박)	지학 (방)	창비	천재 (대)	천재 (박)	천재 (김)	텍 스 트
봉산탈춤	상	상		상	상	하	상	하	상			상	하	상		하
꼭두각시 거리					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상						

<봉산탈춤>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공연 예술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다. 고등 국어 교육 과정은 기본 과목인 국어를 10학년에 학습하고, 심화과목인 문학을 11학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10학년에 수록된 <봉산탈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 이유는 <봉산탈춤>을 통해 민속극을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 설정은 문학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11학년에서도 민속극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고찰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³⁰⁾ 즉, 10학년에 이루어진 민속극 수업을 토대로 민속극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II장에서는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살펴보고, 그 바탕에서 가면극 <봉산탈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에 필요한 선행 지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봉산탈춤>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과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과장’과 수록되지 못한 ‘과장’을 파악하고,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제재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을 살펴서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봉산탈춤>의 교육 현황을 살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어떤 양상으로 수록이 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우선,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목표, 교육과정 영역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성취 기준’과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성취기준’을 살피는 일은 <봉산탈춤>을 제재로 하는 학습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될 때 어떤 형태로 수록이 되었는지 학

30)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14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민속극 제재는 양주별산대놀이(3종), 꼭두각시놀음(5종), 봉산탈춤(9종), 통영오광대놀이(2종), 고성오광대놀이(1종), 하회별신굿탈놀이(4종), 수영야유(1종)이다. 문학 교과서는 다양한 민속극 제재를 수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봉산탈춤>의 수록 빈도수가 높았다.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가 <봉산탈춤>을 제재로 하고 있다면 문학 교과서는 새로운 제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인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민속극 수업을 목표로 대단원 안에서 단독으로 중단원을 구성했는지, 중단원을 구성할 때,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수록을 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연계된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과 연계되었고, 어떤 수업을 목표로 단원을 구성했는지 살피려고 한다. 이것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인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한 단원의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지 살피기 위한 분석이다.

IV장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지도안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 중심 교육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봉산탈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공연 예술적 특징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산탈춤>은 공연물이지만 교실에서는 공연을 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매체를 활용해 <봉산탈춤> 일부를 감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때 사용한 매체는 교사가 수업에 편의를 위해 사용한 교사 중심의 매체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찾아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예비적 고찰

본 장은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행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봉산탈춤>을 단지 교과서에 수록된 채록 대본을 통해서만 학습하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봉산탈춤> 학습을 통해 민속극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수-학습 방안도 선행 지식의 바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교사는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교사가 민속극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봉산탈춤>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려고 한다. 또한 <봉산탈춤>의 구성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공연 예술적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교수-학습 방안은 교사가 <봉산탈춤>을 교과 학습으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질문에 답을 찾게 해줄 것이다.

1. 민속극과 <봉산탈춤>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민속극(民俗劇)’과 그 하위 갈래인 ‘가면극(假面劇)’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일이다. 이것은 본고에서 다룬 <봉산탈춤>의 갈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안을 고민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민속극이란 민간전승인 연극이다. 민간전승의 개념을 ‘①민중이 생활상의 필요에서, ②공동적으로 보전하며 재창조하는, ③문자 기록에 의하지 않은 희곡을 가진 연극이 민속극이라 할 수 있다. 민간전승이 아닌 것은 민속극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³¹⁾ 한국의 민속극은 가면극, 꼭두각시놀음, 발탈이 있다. 가면극은 가면을 쓰고, 꼭두각시놀음은 인형을 사용하며, 발탈은 발에 가면을

3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0, 229쪽.

씩워 인형처럼 움직이게 한다.³²⁾ 그러나 민속극의 하위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박진태는 현재까지 전승되는 민속극으로 가면극, 인형극, 발탈, 무당굿놀이, 풍물패의 잡색놀이가 있다고 했다. 민속극의 첫 번째 성격을 민간전승으로 보고 탈과 인형을 물질전승, 재담과 노래는 언어전승, 춤과 놀이는 행위전승으로 보았다.³³⁾ 또 조동일은 출발 단계 연극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무당굿놀이, 꼭두각시놀음, 탈춤을 민중 연극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민속극에 속한다고 했다.³⁴⁾ 하지만 장덕순 외는 농악대의 잡색놀이, 무당놀이는 민속극이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잡색놀이는 가장자(假裝者)인 잡색만으로 공연되지 않고 비가장자(풍물잡이나 관중)의 개입이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사가 많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무당놀이는 독립적으로 공연되지 않고 굿의 일부로만 공연되기 때문에 무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³⁵⁾ 이처럼 학자들은 민속극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민속극에 가면극과 인형극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봉산탈춤>은 가면극에 속하기 때문에 민속극을 교육할 수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에 대한 용어도 연구자들에 따라 가면극, 탈춤, 탈놀이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서연호는 ‘가면극은 가면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극을 뜻하며, 현존하는 가면극을 유칭(類稱)하는 개념이다.’라고 했다.³⁶⁾ 그리고 오판진은 ‘탈춤이란 용어는 가면극의 여러 요소 가운데 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이나 체육 등 신체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³⁷⁾고 했다. 탈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가면극은 장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만 놀이로써 화합하고 기원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³⁸⁾

또한 가면극은 그 지역적 분포와 특징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다.

32) 전경욱, 『민속극』,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3.

33) 박진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교육』, 비교민속학회, 2003.

34) 조동일, 『한국문화통사 3』, 지식산업사, 2006, 598쪽.

35) 장덕순 외, 위의 책, 228쪽.

36) 서연호, 『가면극연구』, 월인, 2002,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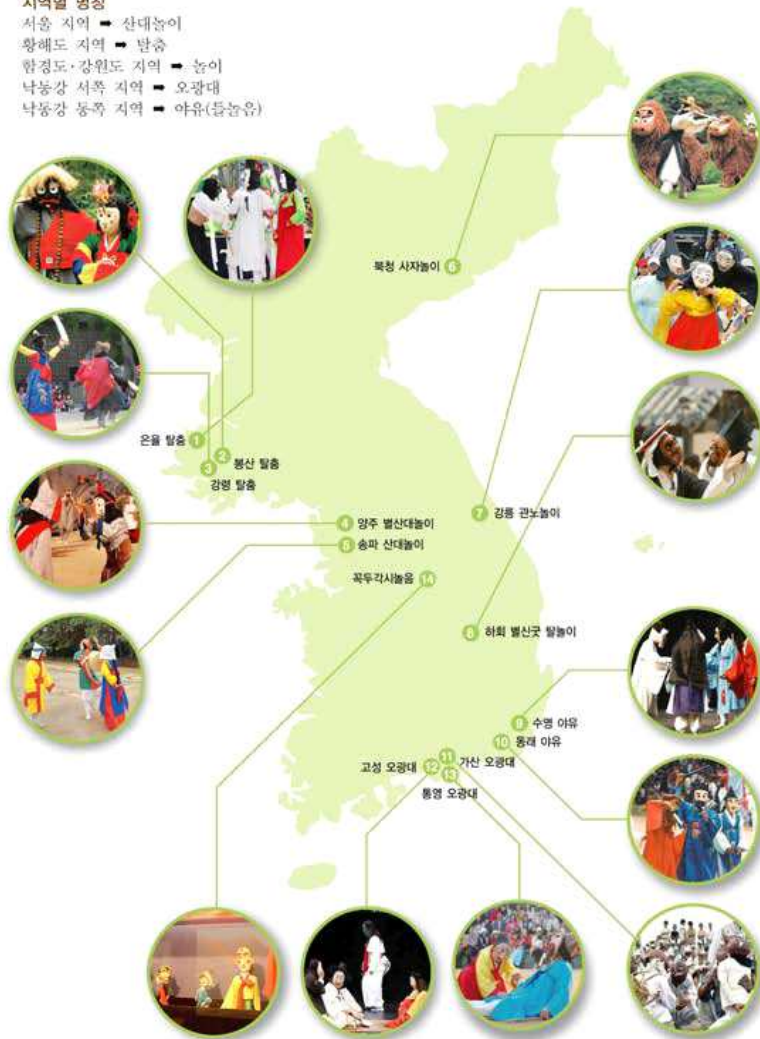
37) 오판진, 「가면극 연행 체험 연구-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박사학위 논문, 2012, 18쪽. 오판진은 앞서 ‘탈춤이란 용어는 황해도 탈춤 중에서 봉산탈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가면극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회자될 만큼 탈춤이란 용어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고찰했다. 이어서 ‘오늘날 탈춤이란 말은 좁게는 황해도 지역의 가면극을 일컫고 있는 동시에 넓게는 가면극 전반을 두루 뜻한다’고 정리했다. 오판진 위 논문, 17~18쪽.

38) 심상교, 『한국전통연희론』, 집문당, 2007, 136쪽.

3 전통 민속극의 종류 알고 감상하기

지역별 명칭

- 서울 지역 ▶ 산대놀이
- 황해도 지역 ▶ 탈춤
- 함경도·강원도 지역 ▶ 놀이
- 낙동강 서쪽 지역 ▶ 오광대
- 낙동강 동쪽 지역 ▶ 아유(들놀이)



VI

<사진 1> 가면극의 지역별 명칭³⁹⁾

39) 김병권, 더 텍스트(국어 하), 2010, 273쪽.

<사진 1> ‘가면극의 지역별 명칭’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⁴⁰⁾ 가면극은 지역적 분포에 따라 산대놀이(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 탈춤(황해도 일대), 야유(들놀이)(경상남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지역), 오광대(五廣大)(경상남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지역)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극의 갈래를 ‘가면극, 꼭두각시놀이, 발탈’로 구분한 전경욱의 의견에 따라 <봉산탈춤>을 넓은 의미로는 민속극으로 보고, 좁은 의미로는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관진⁴¹⁾은 ‘가면극이라는 용어에는 가면을 쓰고 음성언어나 몸짓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연행을 통해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는 ‘극’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했다. 앞서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에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은 ‘극문학(연극, 영화, 드라마)’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놀이의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풍자와 해학을 표현하는 대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극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면극’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속극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살피고,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에 해당하는 <봉산탈춤>이 그것에 부합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제재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살펴볼 때, 민속극의 교육 내용이 곧 <봉산탈춤>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민속극과 같은 전통문화를 교육시키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것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는 단절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속극 교육의 중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민속극 교육은 민속극을 통해서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재인식 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민속극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속극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박진태는 ‘민속극을 교육함에 있어서 민속 문화를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인

40) 김병권, 더 텍스트(국어 하) 교과서는 ‘가면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상위 개념인 ‘전통 민속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살펴볼 때, ‘가면극의 지역별 명칭’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표 제목을 임의로 바꾸었다. 그리고 각 교과서마다(고등국어 10학년 기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민속극, 가면극, 탈춤, 전통극 등으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41) 오관진, 위의 논문, 18쪽.

식하는지 기본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⁴²⁾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육 입장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교실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민속극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민속극을 넓은 시야로 인식할 있어야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속극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속극의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 과정 안에서 민속극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려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성격’에 문학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이 문학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능력은 작품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 활동과 작품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본 것이다.⁴³⁾

이것은 문학교육이 작품을 읽고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속극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유미영⁴⁴⁾은 민속극의 교육 내용을 ‘첫째, 민속극에 대한 특성과 존재 양상에 대한 것이다. 둘째, 민속극이 모방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보고 민중의 삶과 관련

42) 박진태는 위의 논문에서 ‘민속극 교육의 내용은 민속학이 민간전승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간적 측면과 전승적 측면, 그리고 현대적 수용과 변용으로 나누어 체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적 측면은 연회자, 공연시기, 공연 장소가, 전승적 측면에서는 전승지, 전승의 종류(언어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 전승원리가, 현대적 수용과 변용의 측면에서는 창조적 계승과 성격 변화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고 했다.

4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 2008, 16쪽.

44) 유미영, 「구비문학교육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 과제의 분석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26~27쪽.

지어 보게 하고 민속극이 공연되던 장소를 설명해주어 민속극이 출현하게 된 배경까지 추리해보도록 한다. 셋째, 민속극의 기능에 대한 것이 교육내용이 된다. 민속극은 농민이나 이숙, 상인 등 민중이 스스로 즐기기 위한 문학으로 민중의 생각과 주장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학이다. 따라서 민속극은 사회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현실적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속극의 기능은 오락적인 기능과 함께 사회 비판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속극의 특성이나 극의 내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 내용이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미영의 견해는 민속극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짚어주고 있다. 첫째, '민속극에 대한 특성과 존재 양상'과 둘째, '민속극의 출현 배경'에 대한 교육 내용을 통해서 무대극과 다른 민속극의 공연예술적인 특징을 반영한 교육의 필요성을 엿보게 한다. 그리고 셋째 '민속극의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을 통해서 민속극을 통해 당시 시대상과 민중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갈등과 풍자, 해학을 살피는 교육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끝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하겠다.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속극의 교육 내용은 <봉산탈춤>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봉산탈춤>의 유래와 채록되기까지의 전승 과정, 구성 및 내용을 살피면서 교육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봉산탈춤>의 유래와 구성 및 내용

황해도 일대의 탈춤을 '해서탈춤'이라고 한다. <봉산탈춤>은 내륙의 평야지대인 황주, 서흥, 봉산 지역의 탈춤으로 해안지대인 해주, 웅진, 강령 지역의 '해주탈춤', '강령탈춤'과 함께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탈춤이다. 황해도의 주요 읍들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지로 상업이 성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봉산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남북 직로상의 교통 요지였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각 지역이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게 했고, 아울러 탈춤 공연이 성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봉산탈춤>은 '강령탈춤'과 함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해서탈춤'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특히 1936년 8월 30일(백중날) 사리원 경암산(景岩山)

아래 마당에서 거행한 공연이 경성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⁴⁵⁾ 그리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 중 하나이다. ‘봉산탈춤’은 주로 단옷날에 놀았고, 그 외에 중국 사신의 영접이나 신임 사또의 부임을 축하할 때 관아의 행사로도 연행되었다. 놀이꾼은 관아의 하급 관속, 상인, 마을 주민이었다. 하급 관속의 참여로 가면극의 공연이나 연출이 유리했고, 연기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었다.⁴⁶⁾ 이러한 내용은 <봉산탈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봉산탈춤>이 성립된 유래를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봉산탈춤>의 전승과 연행시기를 살펴야 한다. <봉산탈춤>은 민중들에 의해 생성되어 연희자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연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대본은 연희자들의 구술을 채록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봉산탈춤> 역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대본을 채록하기에 이르렀다. 1936년 8월 31일(음력 7월 15일 백중날) 황해도 사리원에서 공연이 끝난 후 오청, 임석재, 송석하에 의해 당시 연기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대사의 채록이 이루어진 것이다.⁴⁷⁾ 세 사람이 각각 채록한 것의 최종 정리는 임석재가 담당했다.⁴⁸⁾

다음으로는 1960년대 <봉산탈춤>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1965년에 월남한 놀이꾼인 김진옥, 민천식 등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두현이 그 대본을 채록했다.⁴⁹⁾ 이 시기 이루어진 대본의 채록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 새로이 시도된 것으로 1936년의 채록본에 비해 추가된 장면도 있고, 이전에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두현에 의해 채록된 대본이 따로 소개되고 있다. 이 시기 이루어진 이두현본이 가지는 특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45) 전경옥, 『한국의 가면극』, 열화당, 2007, 64쪽~65쪽.

46) 전경옥, 위의 책, 65쪽.

47) 1936년 연행을 채록한 자료는 넷이 전해지고 있다.

서연호수장본 : [假面舞踊 鳳山탈脚本]

오청채록·구자균필사본 : [假面舞踊 鳳山탈脚本] 혹은 [假面劇 鳳山탈脚本]

송석하채록본 : [봉산가면극각본], 『문장』 6월호, 1940.

임석재채록본 : [봉산탈춤대사], 『국어국문학』 18호, 1957.

조만호, 「봉산탈춤 자료 분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7집, 2004, 112쪽.

48) 이렇게 정리된 <봉산탈춤> 대본은 세 사람(오청, 임석재, 송석하)에 의해 각각 발표되었는데, 임석재에 의해 하나로 정리된 대본을 세 사람이 각기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때 나름대로 가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임세경, 「봉산탈춤 전승 양상」, 남도민속연구 제12집, 2006, 190쪽.

49) 10학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6종 중 <봉산탈춤>이 수록된 교과서는 11종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본 중 창비(국어 상)만 ‘임석재 채록본’이고, 나머지 10종은 모두 김진옥, 민천식 구술을 이두현이 채록한 대본이 수록되어 있다.

들 수 있다. 먼저 <봉산탈춤> 연행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의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것이 기존 연희자들의 노력에 의해 재구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모습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황해도 지역에서 연행되었던 상황과 그 모습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희라는 측면보다는 전승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⁵⁰⁾ 이러한 내용은 앞서 <봉산탈춤>을 구비문학의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고 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구비문학은 그대로의 보존은 불가능하지만 전승은 가능한데 변화를 내포한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채록된 대본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2013년 5월 26일 국립극장(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에서 봉산탈춤 제 66회 정기공연이 있었다. ‘봉산탈춤보존회’가 주최가 된 공연이었다. 공연시간은 공연 이전에 이루어진 길놀이와 고사를 포함해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공연 전 사회자도 밝혔듯이 최근에는 무대 공연으로 바뀌면서 공연 상황에 맞게 <봉산탈춤> 전 과장을 다 공연하지 않고 일부 과장만 공연을 하거나 시간을 조절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봉산탈춤보존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약 2시간 공연을 위해 정리된 대본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공연 대본은 1965년 이루어진 이두현의 채록본을 기본으로 하여 이수자인 최창주가 정리한 것으로 분량을 조정하고 대사 일부를 쉬운 어휘로 바꾼 것이다. <봉산탈춤>이 활발하게 연행되었을 때도 단오날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놀아졌다는 사실에 비하여 2시간 공연을 위한 대본은 그 양이 많이 축소된 것이다. 즉 연행 환경이 변한 것과 함께 연행의 목적이 변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에 1970년대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연행된 <봉산탈춤> 대본이 대학의 동아리나 연구회 등에 의해 전하기도 한다.⁵¹⁾ 관객 입장에서 <봉산탈춤> 전 과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행 환경과 목적에 맞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도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과장이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연에 전혀 무리가 없고, 역시 관객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봉산탈춤>의 구성 및 내용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봉산탈춤>의 구성은 우리의 민속극이 다 그러하듯이, 현대 연극처럼 첫 과

50) 임세경, 위 논문, 191쪽.

51) 임세경, 위 논문, 191쪽~192쪽.

장⁵²⁾과 끝 과장이 연속체로 된 드라마가 아니고, 주제별로 된 몇 개의 드라마가 소위 옴니버스 스타일로 한 테두리 속에 들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⁵³⁾ 그리고 <봉산탈춤>의 주제는 민중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벽사의 의식무, 과거승에 대한 풍자, 양반계급에 대한 모욕 그리고 일부 대 처첩의 삼각관계와 서민생활의 곤궁상 등을 춤, 대사와 노래로써 표현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과거승, 몰락한 양반과 그 하인인 말뚝이, 무당, 사당패와 기타 서민들이다. 내용은 풍자와 해학의 방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며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람을 드러낸다.

<봉산탈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길놀이
- 제1과장 : 사상좌춤
- 제2과장 : 팔목중춤
 - 제1경 : 팔목중춤
 - 제2경 : 법고놀이
- 제3과장 : 사당춤
- 제4과장 : 노장춤
 - 제1경 : 노장춤
 - 제2경 : 신장수춤
 - 제3경 : 취발이춤
- 제5과장 : 사자춤
- 제6과장 : 양반춤
- 제7과장 : 미알춤
- 뒷풀이

길놀이란 공연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풍장놀이를 하면서 공연 장소까지 가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탈꾼들은 본격적인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 탈춤의 공연을 알리어 구경꾼을 모으는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 행한다. 악사(호적<태평소>, 썩파리, 북, 장고, 징 등 3현 6각의 길군악 연주)들을 선두로 하여 탈을 쓴 사자, 말뚝이, 취발이, 포도대장, 소무, 양반, 영감, 상좌, 노장 그리고 남강

52) ‘과장’이란 탈춤의 구성단위이다. 판소리에서 ‘마당’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탈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서양 연극과는 달리 주제가 다른 각 과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3)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163쪽.

노인의 순서로 행렬을 이루고서 읍내를 일주하며, 이 때 원숭이는 놀이판의 관객을 정리하기도 했고, 봉산탈춤의 중흥자인 안초목의 영혼을 위로하고, 연희자와 관객들의 안녕을 비는 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보통은 장작불을 피워놓고, 농악식 장단에 맞추어 집단적인 신명풀이로 못동춤(화랑이춤)을 추다가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면 본격적인 탈춤을 시작한다.⁵⁴⁾ 2013년 5월 26일에 있었던 ‘제66회 봉산탈춤 정기공연’에서도 공연 시작 전 고사를 지내는 시간이 있었다. 관객들도 고사에 참여하면서 놀이의 시작을 함께 했다. 이것은 관객과 배우가 놀이의 현장 속에 함께 있으면서 공연을 만들어갈 거라는 걸 알리는 의미도 있었다.



<사진 2> 길놀이⁵⁵⁾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각 과장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에서 ‘극문학(연극, 영화, 드라마)’에 속한다. 이근삼⁵⁶⁾은 ‘극이란 결국 어떤 인간이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갈등이 없는 극이란 생명이 없다. 과거의 어떠한 극을 봐도 어떤 인물이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갈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에서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과장이 극문학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과장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갈등이 잘 드러난 과장을 찾아보았다. 어떤 갈등이 드러나 있고, 그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⁵⁷⁾

54) 이강순 · 신언경 공저, 『봉산탈춤』, 교육과학사, 2008, 47쪽.

55) 봉산탈춤보존회 www.bongsantal.com.

56) 이근삼, 『연극개론』, 문학사상사, 2007, 15쪽.

57) ‘<봉산탈춤> 과장별 내용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이두현 채록본임을 밝힌다. 그 이

<표1> <봉산탈춤> 과장별 내용과 갈등 양상 파악⁵⁸⁾

과장	내용	갈등 양상
제1과장 사상좌춤	동서남북의 사방신(四方神)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무이다.	벽사의식(辟邪儀式)과 관련한 의식무 과장으로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제2과장 팔목중춤 · 제1경 팔목중춤 · 제2경 법고놀이	· 제1경 팔목중춤 : 여덟 목중이 사설과 춤으로 각각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이다. ⁵⁹⁾ · 제2경 법고놀이 : 두 명의 목중이 등장해서 법고를 가지고 재담을 하는 내이다.	제2과장 팔목중춤은 제4과장 노장춤에서 일어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팔목중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제3과장 사당춤	사당과 홀애비거사가 어울려 타령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서도소리를 하며노는 막간놀이극이다.	민속놀이의 퍼레이드식 막간놀이로 갈등을 드러내는 과장으로 볼 수 없다.
제4과장 노장춤 · 제1경 노장춤 · 제2경 신장수춤 · 제3경 취발이춤	· 제1경 노장춤 : 살아있는 부처(生佛)라는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내용이다. · 제2경 신장수춤 : 노장이 소무의 신을 외상으로 사자 신장수가 신발값을 받기 위해 원승이를 보내지만 노장의 협박에 도망가는 내용이다. · 제3경 취발이춤 : 취발이가 노장과 대결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와 사랑을 나눈 뒤 아이를 얻어 글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종교적 지향을 가져야 할 승려의 삶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제5과장 사자춤	파계를 한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해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벌을 주려 한다. 그러나 목중들이	벌하러 온 사자가 목중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를 하는 화해의 장이기 때문

유는 앞서 <봉산탈춤>의 ‘전승과 연행 시기’를 살펴면서 고등학교 교과서 16종 중에 11종 교과서에 <봉산탈춤>이 실렸는데, 그 중 10종 교과서가 김진옥, 민천식 구술의 이두현 채록본을 수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교과서 수록 빈도가 높은 이두현 채록본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채록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8)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을 읽고 표로 정리했다.

	회개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자가 용서하고 함께 춤을 추며 화해하는 내용이다.	에 갈등을 드러내는 장으로 볼 수 없다.
제6과장 양반춤	양반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몰락한 양반들의 부패한 생활상을 말뚝이가 등장하여 해학과 풍자로 고발하는 내용이다.	양반과 하인의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양반 계급에 대한 반감과 모독)
제7과장 미얄춤	난리통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얄할미’가 만났는데 영감이 데려온 애첩 ‘덜머리집’ 때문에 삼각관계에 빠진다. 이들은 살림을 가리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영감의 실수로 미얄할미는 죽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무당을 불러 지노귀굿을 해준다.	남편과 아내, 첩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로 인한 애정 다툼이 가져온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봉산탈춤> 각 과장의 내용을 살펴본 바, 제1과장 사상좌춤은 벽사의식(辟邪儀式)과 관련된 의식무 과장이고, 제3과장인 사당춤은 민속놀이의 퍼레이드식의 막간놀이 과장이다. 그리고 제5과장인 사자춤은 화해의 과장으로 갈등의 해소를 보여주는 것이지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1과장, 3과장, 5과장에서는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 제2과장 팔목중춤과 제4과장 노장춤은 종교적인 갈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과장의 갈등 역시 같은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과장은 4과장에서 일어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팔목중들이 사설과 춤으로 자기소개를 반복하기 때문에 갈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교적 지향을 가져야 할 승려의 삶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제4과장인 노장춤, ‘양반과 하인의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제6과장인 양반춤, ‘남편과 아내, 첩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로 인한 애정 다툼이 가져온 갈등’을 드러내는 제7과장인 미

59) 목중춤의 전개 과정은 ‘등장(탈판의 중앙에 자리잡음)→진등장자 추출(탈판 정리)→관정리(관중의 관심 집중 유도)→재담(목중의 성격과 춤의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춤으로 들어가는 계기 마련)→불림(재담에서 춤으로 넘어가는 계기 마련)→개인 특징의 춤(목중 개인의 특기가 춤으로 발휘되는 부분)→일반적인 빠른 사위춤(팔목중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수인사(관중에게 인사드림)→작은 불림(수인사 후 다시 춤으로 들어가는 계기 마련)→빠른 사위춤(끝마무리를 위한 춤)→퇴장(다음 등장하는 목중에게 쫓겨남)’순이며, 위 이강순 · 신언경 공저, 위의 책, 48쪽. 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웠다.

얽춤이 갈등구조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극문학을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제재이다. 하지만 각 과장에서 갈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찾아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살펴보면 각 과장에 드러난 갈등의 원인이 등장인물 내부의 문제에서만 비롯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그 등장인물이 처한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의 갈등을 그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들여다보는 것이 좀 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⁶⁰⁾

① 제4과장 노장춤에 드러난 갈등

노장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인 노장의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장은 음성언어인 대사를 사용하지 않는 무언의 인물⁶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장의 갈등이 춤과 몸짓 연기로 드러난 장면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노장 (도드리곡에 맞추어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저을 일어난다. 육환장을 짊고 슬며시 일어나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허리는 구부린 채 사람이 있나 없나 한쪽에서부터 서서히 몸을 돌리며 주위를 살펴본다. 천만 뜻밖에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 소무가 나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부채를 부르르 떨면서 땅에 엎드린다. 다시 일어나 부채살 너머로 소무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고 소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선녀(仙女)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속인(俗人)인 것을 알고 속세(俗世)에 저렇게 아름다운 미색(美色)이 있나 하고 매우 감탄하는 듯하다. 지금까지 불도에 자기 일생을 바친 것을 후회나 하는 듯 소무를 물끄러미 보면서 속세에 내려와 저런 미색을 데리고 일생을 보낼 것을 생각하였는지 이윽고 결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소무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유혹된 것 같다. 얼굴은 여전히 부채로 가리고 있다.)

제4과장 노장춤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62~163쪽)

60) 국어 교과와 '문학영역'의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극문학을 학습할 수 있는 제재를 찾다 보니 갈등 양상이 뚜렷한 것이 극문학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 양상이 없는 과장은 국어 교과 학습으로 부적합한 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과서 지면상 <봉산탈춤> 전 과장을 학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장만 수록해야 한다면 극문학을 학습할 수 있는 과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봉산탈춤> 전체 과장에 대한 소개와 이해는 이루어져야 한다.

61)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인물 중 대사가 없는 무언의 인물은 '노장, 소무, 원숭이, 사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노장'을 뺀 나머지 등장인물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노장'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갈등만 다루기로 한다.

인용한 대목은 제4과장 제1경 노장춤이다. 노장은 춤과 몸짓 연기로 내면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노장은 오랫동안 불도를 닦은 수도승이다. 하지만 소무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불도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장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수도승으로써의 삶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를 시도하려는 한 사람의 남성으로써의 삶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무엇인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노장춤에 드러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2경 ‘신장수춤’과 제3경 ‘취발이춤’에서도 노장은 역시 대사가 없다. 상대방의 대사를 통해서 노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노장의 갈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장수 -생략 (노장 앞쪽을 지나러 할 때에 노장이 부채로 신장수 면상을 탁 친다.)
 신장수 (깜짝 놀라 뒤로 몇 걸음 물러선다.) 아 이게 아 내가 평상에 매라는 것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딱 하고 때리니 이것이 무엇이나? 오오 자세히 보니 머리에 송낙을 눌러쓰고 푸른 장삼에 백팔염주를 목에 걸구 붉은 가사를 메었으니 분명히 중이로구나. 중이면 승속(僧俗)이 다르나니 양반을 보고 소승(小乘) 문안이오 하고 인사는 없이 사람을 함부로 때리다니.

노장 (신장수를 손짓으로 부른다)
 신장수 (급시에 친절하게) 오, 나를 오라고. (신짐을 내려놓고 노장 있는 곳으로 간다. 부드러운 말로) 신을 살라고? 그럼 무슨 신?
 노장 (자기 신발을 가리킨다.)
 신장수 오오 있지, 그럼 몇 치?
 신장수 (부채에다 손뼉으로 재어준다.)
 노장 오, 일곱치 닷분, 오 있어 있지. (하면서 신짐 위에 있는 신발 한 짝을 노장에게 갖다준다.)
 노장 (다시 소무의 신을 가리키며 손짓을 한다.)

제4과장 노장춤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66~167쪽)

신장수의 대사를 통해 노장이 걸치고 있는 의상과 소품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 이것은 노장이 절의 스님이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그가 소무에게 주려고 신발을 사려한다는 사실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려가 아닌 과거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10학년 학습자라면 누구나 불도를 닦는 스님이 술과 고기,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노장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한 인

물이다. 즉, 종교적으로 더없이 숭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그가 인간적인 욕구에 빠져 일탈하는 상황이 신장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취발이 -생략. 중이면 절간에서 불도나 힘쓸 일이지 중의 행세로 속가에 내려와서 이쁜 아씨를 다려다 놓고 (불림으로) <끼잉꼬랑 깡꼬리앙> (타령으로 춤을 추다가) 쉬어. (춤과 장단 맞음.) 이놈 중놈아, 말 들어거라 허니 너는 이쁜 아씨를 다려다 놓고 저와 같이 노니 네놈의 행세는 잘 안됐다.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내기나 해보자. - 생략

노장 (취발이가 다가오면 부채로 또 면상을 딱 친다.)

취발이 -생략. 이제는 다시 들어가서 찬물을 쥐어 먹고 이를 갈고서라도 이놈을 때려 내쫓고 저년을 다리고 놀 수밖에 없다. <소상반죽(瀟湘班竹)>열두 마디> (타령곡으로 노장에게 가서 사정없이 노장을 때린다.)

노장 (취발이에게 얻어맞고 할 수 없이 퇴장한다.)

제4과장 노장춤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75~176쪽)

취발이는 소무를 두고 노장과 대결을 해서 이긴다. 이로써 소무는 취발이의 차지가 된다. 어찌 보면 취발이는 노장의 과거를 징벌하는 인물처럼 보인다. 취발이는 노장과의 대결 과정에서 노장의 부채에 얻어맞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노장을 밀어낸다. 학습자들은 노장의 패배와 취발이의 승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후기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회적 배경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 사회는 17세기 들어 유교는 더욱더 강화된 반면, 불교는 민중들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제6과장 양반춤에 드러난 갈등

제6과장 양반춤은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가 나와 재담을 하면서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양반 사회와 시대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뚝이는 양반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말뚝이는 양반의 허위에 문체 제기를 하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언어유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양반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잠깐 동안 해방감만 맛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드러난 갈등은 양반과 하인의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小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생략 -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팔자(八字)로 오련각(五楹閣)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에 비취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퍼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와(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자충신(孝子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具) 붙작시면 용장봉장(龍幟鳳幟) 궤(櫃)두지, 자개함룡(函籠), 반다지, 셋별 같은 돛요강, 돛대야 바쳐 요기놓고, 양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놔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물 꿀물에다 추저놨다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꿀물에다 추저놨다네.> (굿거리곡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제6과장 양반 말뚝이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87~192쪽)

말뚝이는 양반들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에 차서 말을 한다. “이놈 뭐야!”라는 양반들의 호통으로 말뚝이의 용기 있는 도전은 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여기며 신나게 춤을 춘다. 하지만 말뚝이는 반복적으로 양반을 조롱하면서 저항을 계속한다. 학습자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말뚝이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반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당대 조선 후기 사회는 신분적 차이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신분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6과장 ‘양반춤’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은 조선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임을 알아야 한다.

말뚝이 쌤님, 말씀 들으시고.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하오. 돈이나 몇 백량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쌤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서 쓰지 않겠소. 그러니 쌤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제6과장 양반 말뚝이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95쪽)

위에 인용한 내용은 양반들이 말뚝이를 시켜 나랏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말뚝이가 취발이를 잡아오는 대신 그에게 돈을 받아낸 후 양반들과 나누어 갖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말뚝이게 조롱을 당한 양반 삼형제의 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양반 삼형제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양반으로써 가져야 할 도덕성마저도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몰락하고 반면에 돈 많은 상민들이 등장했다는 사회적 배경을 파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양반 삼형제와 말뚝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후기 사회적 배경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말뚝이가 조롱하며 풍자하는 양반은 양반답지 못한 양반인 것이다. 하지만 말뚝이는 그런 양반의 명령조차 거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③ 제7과장 미알춤에 드러난 갈등

미알과 영감은 난리 때문에 헤어져 서로를 찾아 유랑하며 고생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영감은 미알을 구박하며 헤어지자고 한다. 거기다 영감이 첩을 들이면서 갈등은 심화되고, 영감에게 떠밀려진 미알은 끝내 죽게 된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보면 남편과 아내, 첩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가 가져온 애정 다툼이 갈등의 원인이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을 통해 제7과장 미알춤에 드러난 갈등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감 -생략. 처음 난 문열이 그놈은 어떻게 자랐나?
미알 아이고, 그놈의 말 많소. 후유!(한숨 쉰다)
영감 웬 한숨만 쉬나 어떻게 되었나? 어서 말합세.
미알 아, 영감 하 빈곤하기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대요.
영감 무어야, 인제는 자식도 죽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 너하고 나하고는 영영 헤어지고 말자.
미알 여보 영감,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찌 그런 말을 합나.
영감 듣기 싫다. 자식도 없는데 너와 나와 살 재미가 조금도 없지 않나.
미알 헤어질라면 헤어집세.
영감 헤어지는 판에야 더 볼 것 무엇이 있나. 네년의 행적(行蹟)을 덮어둘 것 조금도 없다. 여복쇼. 여러분, 내 말 좀 들으시오. (객석을 향해서) 이년의 소행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년이 영감 공정을 어떻게 잘하는지 하로는 앞집 덜퐁네 며느리가 나들이를 왔다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떡을 가지고 영감 앞에 와서 이것 하나 잡수시오 하면 내가 먹고 싶어도 저를 먹일 것인데 이년이 그 떡그릇은 손에다 쥐고 하는 말이, 영감 앞집 덜퐁이네 나들이 떡을 가져온 것을 먹겠습나 안 먹겠습나? 안 먹겠으면 그만 두지 하고 저 혼자 먹으니 대답 할 사이가 어디 있습나, -생략-
미알 (한편에 서 있던 용산삼개 덜머리집을 가리키며) 이놈의 영감, 저렇게 고운 년을 얻어두었으니까 나를 미워하고 흥만 내지 이별하면 같이 이별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지. -생략-

제7과장 미알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205~26쪽)

인용한 내용을 보면, 영감을 중심으로 미알과 첩이 서로 겨루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오관진⁶²⁾은 ‘부부 사이 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제가 갈등의 축이

62) 오관진, 「가면극 연행 체험 연구-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교육 박사학

된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인물들이 상대의 애정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조선 후기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 모습이 담겨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 첩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가 만들어낸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서민들의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미얄과 영감이 헤어지게 된 원인은 첩 덜머리집이 생기기 훨씬 이전인 난리 때문이었다. 그 난리는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이 될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겪은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졌고 따라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 미얄춤의 갈등을 ‘삼각관계가 가져온 애정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살펴본 것처럼, 제4과장 노장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얄춤에 등장인물들의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것을 통해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에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적합한 극문학 제재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작품에 드러난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릴 수 있다. 조동일은 ‘우리 전통 예술의 여러 영역 중에서 탈춤만큼 민중의식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는데 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⁶³⁾고 했다. 이것은 <봉산탈춤>에 드러난 민중들의 갈등을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들이 처해있는 현실이 그들을 갈등하게 했고 때문에 비판과 저항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봉산탈춤>의 구성과 각 과장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공연예술의 특징도 확인했다. 공연 예술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자들의 특정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연기자들이 사용하는 가면,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춤, 몸짓 등의 연기 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작품을 감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봉산탈춤> 공연 현장 사진이나 공연 영상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을 살피는 일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때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준다.

위 논문, 2012, 143쪽.

63)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46쪽.

2)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

<봉산탈춤>은 우리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가면극이면서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담화와 표현이 담겨있는 언어자료이다. <봉산탈춤> 각 과장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전달 방식이 주로 탈춤놀이, 노래, 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 언어 자료는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서 대사로 전달이 된다. 대사는 관객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공연이 전제되었을 때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교과서를 통해 만나는 대사는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옥동⁶⁴⁾은 ‘탈춤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탈춤에서는 일상 세계에서라면 마땅히 금기시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탈춤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외설적 언어, 언어의 유희, 반어의 미학, 숫자의 미학, 비유적 언어’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이석규⁶⁵⁾는 ‘봉산탈춤의 대사 내용은 스토리와 사건이 있기는 하나 문학적으로 볼 때 사상성이나 스토리 전개에 극적인 요소가 불품이 없으며, 스토리 자체도 아주 단순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봉산탈춤이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의상과 탈춤 외에도 ‘대사’의 표현 방식에 있다.’고 했다. 이석규의 논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봉산탈춤>은 한자어와 고유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쓰임새도 달랐다.

예를 들어 한자어는 내용상으로는 풍광, 인물, 고사 등은 현학적으로 나열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문어체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수사법으로 열거, 반복, 대구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고유어는 전적으로 구어체로 표현되고, 희언과 욕담에 주로 사용을 한다. 수사법도 반복, 열거, 의성, 대구, 대조, 직유, 은유, 환유, 과장, 점층, 점강, 역설 등 한자어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진솔하고 역동적인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봉산탈춤>에 드러난 이러한 언어 표현의 특징을 국어교육 측면에서 다룬다면 어떤 내용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우선,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본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외설적인 언어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생략한 채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봉산

64) 김옥동, 『탈춤의 미학』, 현암사, 1994, 333쪽.

65) 이석규, 「봉산 탈춤의 언어 사용 연구」, 인문언어 6호, 2004, 273쪽.

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말뚝이 낙향사부(落鄕士夫)라, 서울 본택(本宅)을 찾아가니 섯님도 안 계시고 종가(宗家)집 도련님도 안 계시고 마나님 혼자 계시기로 벅거지 쓴 채 이 채씩 찬 채 감발한 채 두 무릎을 꿇고 하고 하고 재독(再讀)으로 했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하하, 이 양반 어찌 듣소. 문안을 드리고 하니까 마나님이 술상을 차리는데 벽장문(壁藏門) 열고 목이 길다 황새병(瓶) 목이 짧다 자라병이며, 홍곡주(紅穀酒) 내어놓자 앵무잔(鸚鵡盞)을 마나님이 친히 들어 잔 가득히 술을 부어 한 잔 두 잔 일이삼배(一二三拜)를 마신 후에 안주를 내어놓는데 대양푼에 갈비찜 소양푼에 제육(豬肉), 초, 고추, 저린 김치, 문어(文魚), 전복, 다 버리고 작년 팔월에 섯님택에서 등산(登山) 갔다 남아온 좃대갱이 하나 줍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등산갔다 남아온 어두일미(魚頭一味)라고 하면서 조기대갱이 하나 줍디가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조기대이라네.> (굿거리곡으로 일제히 춤)

생원 쉬이. (가락과 춤 멈춘다.)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예. 아 이 재미를 볼을 양반인지 좃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말뚝아 꼴뚝아 발 가운데 최뚝아, 오뉴월에 밀뚝아, 잔디뚝에 메뚝아, 부러진 다리 절뚝아, 호도엿 장사 오는데 할애비 찻든 왜 이리 찻소?

제6과장 양반 말뚝이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89~190쪽)

외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언어가 들어간 표현은 생략한 채 수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7과장 미얄춤과장’도 마찬가지다. 미얄 할미와 영감이 만나 음란한 행동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생략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학습 대상자인 10학년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행히 중간에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억압된 언어가 가면극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되고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전달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교과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뺀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의 특징을 크게 ‘언어의 유희를 통한 해학미 창출’과 ‘다양한 수사법의 사용’

으로 나누어 보았다.

‘언어의 유희를 통한 해학미 창출’의 예로는 ‘범고놀이’를 ‘벗구놀이’라고 우기면서 옷을 벗는 모습을 연출한다든지(제2과장 팔목중춤 제2경 범고놀이),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할 때, ‘개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온신다 말이오.’(제6과장 양반춤)의 경우처럼 한자어인 ‘양반’을 우리말로 억지로 꿰맞추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악공이 영감을 찾고 있는 미알에게 영감의 모색을 알려달라고 하자 미알이 대답하는 부분도 언어의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예가 된다.

악공 그러면 영감의 모색(毛色)을 댁세.
미알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
악공 그러면 말새끼란 말인가?
미알 아니 소모색일세.
악공 그러면 소새끼란 말인가?

제7과장 미알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96쪽)

그리고 <봉산탈춤>에 사용된 다양한 수사법을 한 가지씩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영감 (시나위칭으로) 절절절 절시구 절절절 절시구 (반복)
말뚝이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거니 노론, 소론, 이조, 옥당을 다 지내고 (열거)
영감 (객석을 향해서) 이년의 소행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년이 영감공경을 어떻게 잘하는지 하로는 앞집 덜퐁네 며느리가 나들이를 왔다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떡을 가지고 영감 앞에 와서 이것 하나 잡수시오 하면 내가 먹고 싶어도 저를 먹일 것인데 이년이 그 떡그릇은 손에다 쥐고 하는 말이, 영감 앞집 덜퐁이네 나들이 떡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반어)
영감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뭄날에 빗발같이 보고지고, 구년홍수(九年洪水) 대홍수에 햇발같이 보고지고 (직유, 역설)
영감 동지(冬至) 선달 설한풍(雪寒風)에 방은 찬데 발길로 이불을 툭 차고 이마로 붓장을 받아서 코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배뻐기를 삐적삐적 씹으면서 우리 요강은 파리 한 놈만 들어가도 소리가 왕왕하는 것인데 (의성어, 의태어)
미알 (소리조로) 우리 영감이 모색을대. 난간이마 주케덕 응케(우덕)눈에 개발코, 상통은 (갓바른) 과녁(판) 같고 수염은 다 모즈러진 귀얄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쫓 같고 키는 석자네치 되는 영감이올세. (과장)

반복을 통해서 관객의 흥을 돋우며 함께 하는 무대를 이끌어간다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거를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예는 말뚝이나 양반들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열거의 예이다. 그리고 반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위의 예는 영감이 미알과 헤어지기 위한 구실을 드러내기 위해 미알이 평소에 자신을 잘 섬기지 못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직유와 역설,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희극적 과장을 통한 웃음 유발 등 다양한 수사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사법은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자가 적절히 활용할 때 드러난다. 이처럼 <봉산탈춤>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재미를 위한 언어 구사 많다.

앞서 <봉산탈춤>은 도시형 탈춤으로 조선후기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과 이숙들의 뒷받침으로 공연되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양반들에게 종속되지 않은 채 공연할 수 있었고, 양반에 대한 자유로운 풍자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소 역시 넓은 시장이었고, 그곳에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넓었을 것이다. 다양한 수사 표현과 희극적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미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은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은 물론이고, 관객과 일체가 되는 공연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이 공연을 통해 관객과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습자들은 공연 장면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 방식이 어떻게 관객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며 소통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산탈춤>을 통해 전통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면 다른 전통 공연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봉산탈춤>은 전체적으로 장단에 맞춘 춤이 주가 되며, 이에 몸짓, 재담, 노래가 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가무적인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무적인 부분은 춤과 노래가 주된 내용으로 벽사 의식무(제1과장 사상좌춤)로 시작해서 원혼을 달래는 지노귀굿으로 끝나는(제7과장 미알춤) 구성이다. 그리고 연극적인 부분은 연기자의 몸짓과 대사로 이루어진 연기와 극적인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이 연극적인 부분도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무대극과는 다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현대 연극, 뮤지컬, 마당극, 각종 콘서트 등을 떠올리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한다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찾아낸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 특징을 무대와 객석, 관객 참여 여부, 시·공간의 제한, 전체 구성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2> <봉산탈춤>과 무대극의 공연 예술적 특징의 차이

구분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	무대극의 공연 예술적 특징
무대와 객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한다. · 공연을 하는 무대와 관객의 객석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관객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과 악공의 극중 개입이 가능하다. ·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가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와 객석의 단절로 관객은 심리적인 반응만 한다. ·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로 소극적 역할에 그친다.
시·공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 극중 장소(작품 속의 상상적 공간)와 공연 장소(가면극이 벌어지는 실제 공간)가 일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는다. · 무대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전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봉산탈춤>의 경우 전체 7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지만 내용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전체가 유기적이고 인과적으로 진행이 된다. · 막과 막, 장과 장 사이는 모두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살펴본바 <봉산탈춤>에 나타난 공연 예술적 특징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서 연기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 이것은 배우와 관객의 일체감을 토대로 한 열린 의사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봉산탈춤>은 현실을 모사(模寫)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소나 시간 속에 이루어진 행위도 한 무대에 표현함으로써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무대공간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면극이 벌어지는 실제 공간과 작품 속의 상상적 공간이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각 과장의 내용은 전체 과장을 다 공연하지 않고 각 과장만 따로 공연을 해도 내용상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를 제7과장 미알춤에서 악공과 미알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공 웬 할맘입나?

미알 웬 할맘이라니 평깡하기에 굿만 여기고 한거리 놀고 가려고 들어온 할맘일세.

악공 그러면 한거리 놓고 잡세.

미얄 놀든지 말든지 허름한 영감을 잃고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맘이니 영감을 찾고야 놀갔습네.

제7과장 미얄춤 (이두현,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96쪽)

악공과 미얄의 대화를 통해서 무대와 객석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공은 극에 개입하여 미얄에게 “웬 할맘입니까?”고 물어보자, 미얄이 “웬 할맘이라니, 땡땡하기에 곳만 여기고 한 거리 놓고 가려고 들어온 할맘 일세.”라고 놀음판에 구경 온 것처럼 하여 배우인 미얄이 무대 밖의 인물 악공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악공이 있는 무대 밖의 객석도 오고 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봉산탈춤> 공연을 보면 배우들도 객석을 활용하면서 극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객석을 오가며 사람을 찾기도 한다. 이것이 <봉산탈춤>과 같은 우리 민속 가면극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특징과 무대와 객석이 구분된 무대극의 차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봉산탈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배경지식과 무대극을 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제재가 교과서에 함께 수록이 되었다면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론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약 연계된 제재가 수록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다면 견줄 만한 작품을 소개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산탈춤> 공연 동영상 활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우선,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극의 내용상 흐름과 성격을 파악한다. 이후에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예술의 특징은 무엇인지 극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파악한다면 연기자와 관객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봉산탈춤>에서 극의 구성 요소는 연기자, 무대, 관객이다. 가면(탈)을 쓴 연기자가 대사와 몸짓, 노래, 춤 등의 공연을 하면 관객은 이에 호응하면서 함께 극을 만들어간다. <봉산탈춤>의 무대는 특별한 장치 없이 마당에서 공연되므로 연기자와 관객이 얼굴을 맞대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 따라서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앞서 살핀 언어 표현이 공연예술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학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연 예술적 특징이 반영된 제재가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 국어 교과서 제재로 수록된 과장이 무엇인지 살펴서 적합한 제재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은 III장에서 이루어질 <봉산탈춤> 교육 현황 분석에서 좀 더 면밀히 다루기로 했다.

Ⅲ. <봉산탈춤>의 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을 분석한 후,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우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2010년까지 적용된 교과서)에서 <봉산탈춤>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 및 교육과정 영역 내용을 검토하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2011년부터 적용한 교과서)으로 오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2007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후, 현행 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될 때 어떤 형태로 수록이 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민속극 수업을 목표로 단독으로 단원을 구성했는지, 동일한 대단원 내에서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수록이 되었다면 어떤 작품들과 연계되었고, 어떤 수업을 목표로 단원을 구성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작품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가 되겠다.

1.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교과서 분석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기 전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은 10학년 국어(상)의 ‘듣기, 말하기, 국어지식’ 영역의 통합⁶⁶⁾ 단원인 대단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에 중단원 ‘(2) 봉산탈춤’으로 수록이 되었다. 이 단원은 장면의 개념을 알고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⁶⁷⁾ 단원의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수록 단원의 학습 목표와 교육 내용

교과서 단원명 및 제재명	10학년 국어(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2) 봉산탈춤
----------------------	---

66)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언어 습득의 순서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재편하였다.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0, 31쪽

6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상)』, (주) 대한교과서, 2002, 140쪽.

<p>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p>	<p>◇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 ◇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p>
<p>교육 과정 영역 및 내용</p>	<p>[듣기 영역] (1)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기본】 · 듣기에서 반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찾는다. · 듣기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찾는다. 【심화】 · 반언어적 표현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본다. · 비언어적 표현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본다.</p> <p>[말하기 영역] (1)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기본】 · 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및 비언어적 표현이 어긋나서 오해가 일어난 예를 찾는다. 【심화】 · 공식적인 말하기와 일상적인 말하기를 비교하고,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알아본다. · 말하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본다.</p> <p>[국어지식 영역] (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기본】 · 담화에서 장면에 따른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는다. 【심화】</p>

	· 담화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가면극 <봉산탈춤>은 10학년 국어(상) 대단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에서 중단원 '(2) 봉산탈춤(제6과장 양반춤)'으로 수록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듣기, 말하기, 국어지식' 영역의 세 가지 교육 내용이 통합되어 있다.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의 학습 목표는 '국어지식'영역 내용인 [10-국지-(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의 학습 목표는 '듣기'영역 내용인 [10-듣-(1)]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와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의 학습 목표는 '말하기' 영역 내용인 [10-말-(1)]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서는 단원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야 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했다.

<표4>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수록 교과서 단원 내용

구분		교수-학습 내용
단원의 길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 ● 상황에 따른 언어 외적 표현 알기 ● 주어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외적 표현 찾아보기
소단원 (2)봉산탈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화에서 장면의 개념 알기 ●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식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 표현 - 심리적 태도 표현 - 높임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탈을 보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장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내용 다시 읽어 보기 ● 장면에 따라 담화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여 작품 내용 다시 표현하기

단원의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학습 성과 점검하기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장면에 적절한 언어 외적 표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평가하기 ● 언어 외적 표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의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전략의 자기화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을 고려한 담화의 의미 해석 ●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방식을 이용한 적극적인 표현 활동

살펴본 바, 10학년 국어(상) 대단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에서 중단원 ‘(2) 봉산탈춤’은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 <봉산탈춤>을 제재로 ‘담화에서 장면의 개념 알기’,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 알기’를 확인하고 있었다.⁶⁸⁾ 특히 다양한 표현 방식의 요소로 지시표현, 심리적 태도, 높임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는 수업을 마련했다. 이것은 가면극의 대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교과서 제재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봉산탈춤> 제재를 통해 이러한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가면극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봉산탈춤>은 교육과정 영역 내용이나 단원의 내용 모두 가면극을 ‘문법 교육’⁶⁹⁾이나 듣기와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화법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법적인 지식을 익히는데 급급한 수업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장면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가면극을 기록문학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나올

68) ‘장면’이란 단어는 담화 문법 용어로 화자와 청자, 둘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 등과 함께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언어 행위를 둘러싼 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담화의 ‘장면’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교학사, 2002, 158쪽. 이러한 담화의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아는 것은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②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57쪽.

69)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사용한 ‘국어 지식’영역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문법’이라는 영역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국어 지식’에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듣기, 말하기, 쓰기, 문학 영역을 모두 지시한다는 점과, ‘국어 지식’에서 ‘지식’이 ‘쓰임과 활용’까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봉산탈춤>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서 ‘문법 교육’을 위해 단원을 설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가면극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보다는 가면극을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적인 제재로만 여기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가면극 제재를 학습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과 언어 외적 표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등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틀림없다. 하지만 주요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주가 되는 수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봉산탈춤>을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이다. <봉산탈춤>은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재이다. 언어를 매개로 연행되기 때문에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제재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봉산탈춤>의 전승과 계승을 이해하고, 오늘날에 맞게 수용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통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서 <봉산탈춤>은 소통 방식과 표현의 특성만 반영했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을 전달하고 화법 교육을 이해하는 제재로만 활용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봉산탈춤>을 통해 한국의 전통 민속극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보다는 학습 활동의 제재로만 보고 그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 교과서 분석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단원 검토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것이다. 그것은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의 연계성’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⁷⁰⁾ 중 다섯

70)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로 나뉜다.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번째 항목을 보면 ‘교육 내용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것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역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영역간의 통합 지도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내용이다. 따라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의 차원에서 강화시켜 교과 구성의 합리성을 꾀하고, 교과 내용 전달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과 ‘교육 내용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봉산탈춤> 수록 단원을 검토할 생각이다.

1)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해 도입된 10학년 국어 교과서는 16종이다. 16종 국어 교과서를 상, 하권으로 정리하면 총 32권이 된다. 그리고 이들 교과서는 개정 국어 교육과정 해설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16종 교과서에 수록된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의 제재와 성취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민속극은 모두 가면극으로 <봉산탈춤>, <하회 별신굿 탈놀이>, <양주 별산대 놀이>다. 이 중 <봉산탈춤>이 11종,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1종(지학사(박갑수)), <양주 별산대 놀이>가 1종(금성(윤희원))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가면극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봉산탈춤>은 5종을 제외한 11종 국어 교과서에서 제재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수록 빈도수가 높은 작품이다. 이것은 <봉산탈춤>이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작품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미숙 외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성취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두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준별 교육이 국가 수준의 수준별 학습에서 학교 및 교사(교수·학습)수준의 수준별 학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¹⁾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대상 작품인 <봉산탈춤>의 11종 국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②』, 2008, 12쪽~15쪽

71)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0, 35쪽. ‘국가 수준의 수준별 학습에서 학교 및 교사

어 교과서 수록 현황을 살펴보는 첫 번째 기준은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이 되겠다. 즉, 11종 교과서들이 각각 어떤 성취기준을 가지고 <봉산탈춤>을 교과서 제재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각 영역 ‘성취기준’ 또는 ‘내용 요소의 예’를 단원의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5> 성취기준으로 본 고등국어 <봉산탈춤> 교과서 수록 현황⁷²⁾
(문→문학, 법→문법, 쓰→쓰기, 듣→듣기, 읽→읽기, 말→말하기)

번호	교과서	작품	단원명	단원 목표	성취 기준
①	교학사 (국어 상)	미알춤	3. 문학과 예술 (2) 공연 예술이 이해	1. 공연 예술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2.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 3. 공연 예술이 지니는 언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듣4
②	더텍스트 (국어 하)	미알춤	6. 전통의 계승과 창조 (2) 공연 예술에 담긴 우리의 언어문화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언어 사용의 관습과 언어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듣4

수준의 수준별 학습으로 전환’이라는 말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해서 국가 수준에서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성취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바뀐 변화를 말한다.

72) <봉산탈춤>이 수록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남현, 『고등학교 국어(상)』, 교학사, 2010.
- ② 김병권, 『고등학교 국어(하)』, 더 텍스트, 2010.
- ③ 이삼형, 『고등학교 국어(상)』, 디답돌, 2010.
- ④ 윤여탁, 『고등학교 국어(하)』, 미래엔걸쳐, 2010.
- ⑤ 한철우, 『고등학교 국어(상)』, 비상교육, 2010.
- ⑥ 민형식, 『고등학교 국어(상)』, 좋은책신사고, 2010.
- ⑦ 박호영, 『고등학교 국어(하)』, 유웨이중앙, 2010.
- ⑧ 문영진, 『고등학교 국어(상)』, 창비, 2010.
- ⑨ 김대행,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 2010.
- ⑩ 박영목,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 2010.
- ⑪ 오세영, 『고등학교 국어(상)』, 해냄에듀, 2010.

③	디딤돌 (국어 상)	양반춤	4. 무대 속으로 (1) 봉산탈춤	1.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2. 장면에 따른 적절한 표현 방식을 알 수 있다. 3.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듣4 범3 듣3
④	미래엔 (국어 하)	양반춤	4. 다양한 표현과 이해 (2) 봉산탈춤	1. 사회 방언을 이해하고,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알 수 있다. 3.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범3 문5
⑤	비상교육 (국어 상)	양반춤	6. 예술 감상의 즐거움 (1) 봉산탈춤	1. 공연 예술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공연 예술의 언어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듣4
⑥	신사고 (국어 상)	양반춤	6. 소통의 힘 (1) 공연 예술과 한판 놀기	1.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언어적 관습을 이해할 수 있다. 2. 관객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공연 예술의 표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공연 예술의 언어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듣4
⑦	유웨이	양반춤	2. 전통의 향기	1. 수용과 전승 과정에	문5

	(국어 하)		(3) 민속극의 소통과 표현	<p>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p> <p>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p> <p>3.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p>	듣4
⑧	창비 (국어 상)	미알춤	<p>4. 한국문학의 전통과 계승</p> <p>(2) 봉산탈춤</p>	<p>1. 탈춤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p> <p>2.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p> <p>3. 전통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p>	듣4
⑨	천재 (김대행) (국어 하)	양반춤	<p>2. 표현 방식 탐구하기</p> <p>(3) 공연예술의 표현 방식</p>	<p>1.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심리적 태도와 표현의 관계를 탐구한다.</p> <p>2. 사회 방언의 표현 방식과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태도를 갖춘다.</p> <p>3.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 및 그 효과를 탐구한다.</p>	듣4
⑩	천재 (박영목) (국어 상)	양반춤	<p>5. 문학과 전통</p> <p>(3) 봉산탈춤</p>	<p>1.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p> <p>2.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p>	문5 듣4

				해한다.	
①	해냄에듀 (국어 상)	미알춤	7. 우리 문학의 숨결 (2) 우리의 공연 예술	1. 연행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3.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듣4

이 밖에도 국어 교과서에 <봉산탈춤>의 일부를 부분 수록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6> 국어 교과서에 <봉산탈춤> 일부가 수록 된 사례⁷³⁾

번호	교과서	작품	대단원명	단원 목표	성취 기준
①	천재 (김중철) (국어 하)	양반춤	6. 예술과 만나다 (대단원 학습 활동에 수록)	공연 예술의 소통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문5
②	두산동아 (국어 상)	양반춤 (부분 수록)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계승 (‘(1) 전통 공연 예술의 성격과 특성’ 단원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 수록)	1. 전통 공연 예술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언어적 관습을 이해할 수 있다. 3.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듣4
③	금성 (국어 상)	양반춤	6. 문학과 소통 (‘(1) 한국 문학의 전통과 공연 예술’ 단원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 수록)	1. 한국 문학의 전통이 계승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2.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문5 듣3 듣4

				3. 공연 예술에 사용되는 언어의 소통 방식과 표현의 특성을 안다.	
--	--	--	--	---------------------------------------	--

살펴본 바, <봉산탈춤>이 수록된 교과서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대부분은 ‘듣기’ 영역이다. 반영된 ‘듣기’ 영역 성취기준은 [10-듣-(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이다.

<봉산탈춤>이 수록된 11종 교과서 중 ‘미래엔 국어(하)’와 ‘유웨이 국어(하)만 [10-문-(5)] 와 연계된 성취기준을 삼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 <봉산탈춤> 을 일부만 수록한 교과서들 중에는 ‘천재 김종철 국어(하)’와 금성 국어(상)이 [10-문-(5)] 와 연계된 성취기준을 삼고 있고, ‘두산 동아 국어(상)’은 [10-듣-(4)] 를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봉산탈춤>을 제재로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종합적인 듣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서에 반영된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 과 ‘내용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7> 10학년 ‘듣기’영역 및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학년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10	(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 이해하기 ·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 이해하기 ·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 이해하기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 판소리나 가면극 공연 예술의 종류로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언어적 표현을 주된 매개로 하는 연극이 적당하다. 특히 판소리나 가면극은 우리 전통의 언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언어 문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73) <봉산탈춤> 일부가 수록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김종철,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 2010.
- ② 우한용, 『고등학교 국어(상)』, 두산동아, 2010.
- ③ 윤희원, 『고등학교 국어(상)』, 금성, 2010.

이 성취 기준은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봉산탈춤>을 ‘듣기’ 영역에서 살피고 있었지만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학습 내용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듣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다른 영역과 연계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게다가 ‘담화의 수준과 범위’에서 가면극을 언어문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재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봉산탈춤>은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 가면극으로서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언어 전략들을 구사한다. 따라서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적 표현 특징을 통해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봉산탈춤>은 [10-듣-(4)] 의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제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듣기’ 영역을 단독으로 설정하지 않고, ‘문학’ 영역 또는 ‘문법’ 영역과 연계시킨 경우를 살펴보겠다. ‘디딤돌 국어(상)’은 [10-듣-(3)] [10-듣-(4)] , [10-법-(3)] 을, ‘유웨이 국어(하)’은 [10-듣-(4)] [10-문-(5)] 를, ‘천재 박영목 국어(상)’ [10-듣-(4)] , [10-문-(5)] 를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먼저 ‘문법’ 영역과 관련된 ‘성취 기준’과 ‘내용의 요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8>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학년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10	(3)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화의 장면에 따라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이 달라진 부분 찾기 · 원근 표현, 부정 표현 등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방식 이해하기 · 담화에 따라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 설명하기

[글의 수준과 범위]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자료
 화자 또는 필자의 심리적 태도가 잘 드러난 자료로서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구어, 문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신문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언어 표현과 스포츠, 문학 영역의 언어 표현을 비교해 볼 수도 있으며,

잡지 자료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심리적 태도가 잘 드러난 소설의 대화 장면이나 실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자료 등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9> 10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학년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10	(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기 ·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을 비교하기 · 문학적 전통의 맥락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의 수준과 범위]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한국 문학사의 전통을 대표하는 작품의 예시(전체 혹은 부분)를 통하여 전통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계승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문학사의 연속성과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전통이 반영되는 사회·문화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의 영역은 ‘듣기, 말하기, 국어 지식’이다. ‘국어 지식’ 영역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으로 영역명을 바꾸었다. 따라서 7차에서 <봉산탈춤>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한 화법교육과 문법교육의 제재로 다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산탈춤>은 이러한 학습 내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제재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문학’ 영역과 연계시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봉산탈춤>의 교과서 제재 활용은 ‘문학’ 영역과 연계시킨 수업 방향을 모색했다. 즉, 기존의 국정 교과서 단위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에서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기 위한 제재로만 활용할 때는 ‘듣기’, ‘말하기’, ‘문법’에 그쳤다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은 물론 ‘문학’과 연계시키면서 학습 내용도

다양해졌다.

<봉산탈춤>을 한국 문학사의 전통을 계승한 문학 작품으로 보고,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 선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바탕에는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봉산탈춤>은 읽기를 목적으로 기록된 문학이 아니라 구비전승이 된 문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 공연 예술을 통해 보여지는 문학으로 독자 또는 관객에게 전달이 된다. 따라서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봉산탈춤>을 전통 공연 예술로 보고 다양한 특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전통 공연 예술의 문화적 가치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공연 예술은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출되는 예술이다. 무대 위의 연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에만 유일하게 무대가 연출되기 때문에 연기자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다.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공연 예술적 특징이 성취기준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평소 학생들이 가깝게 접할 수 없는 가면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인다. 여기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을 교과서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듣기’ 영역을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문학’ 영역과 연계시킨 수업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보게 된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화법 교육을 위해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선택한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구분에 맞게 교과서를 편제한 것이니 무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듣기’ 영역만을 성취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영역과 연계시켜 통합 학습을 시도하기 위해 관련 성취기준과 연계시킨 교과서들이 효과적인 수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으로 보아 <봉산탈춤>을 교과서에 수록할 때 어떤 제재들과 연계시켜 수록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민속극의 공연 예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원을 구성했다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교과서의 학습 내용보다 확대·심화시켰다는 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변화이다. 하지만 영역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봉산탈춤>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면 하나의 제재로 하나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봉산탈춤>과 함께 수록된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을 살필 필요가 있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2)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작품 검토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작품을 검토하는 이유는 앞서 ‘성취 기준’을 통해 들여다본 내용에서 대부분 ‘듣기’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가면극 <봉산탈춤>을 통해 성취 기준 [10-듣-(4)] 를 구현하려는 모습을 여러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제재를 통해 한 가지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인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몇몇 교과서들은 성취 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차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단원에 함께 수록된 작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표10>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단원 검토

번호	교과서	대단원	연계된 수록 작품
①	교학사 (국어 상)	3. 문학과 예술	중단원에 ‘(2) 공연예술의 이해’에 <봉산탈춤(미알춤)>을 단독으로 수록하고, 대단원 마무리 활동 ‘생각 넓히기’에 현대 희곡 <춘풍의 처>를 수록하였다.
②	더 텍스트 (국어 하)	6. 전통의 계승과 창조	중단원 ‘(2) 공연예술에 담긴 우리 언어 문화’에 <봉산탈춤(미알춤)>을 단독으로 구성하고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생각 모으기’에 현대 희곡 <결혼>을 수록했다.
③	디딤돌 (국어 상)	4. 무대 속으로	중단원 ‘(1) 봉산탈춤(양반춤)’을 수록하고, 심화 학습에 인형극 ‘꼭두각시 거리’ 일부를 수록했다. 또한 중단원 ‘(2)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를 수록하였다.
④	미래엔 (국어 하)	4. 다양한 표현과 이해	중단원 ‘(2) 봉산탈춤(양반춤)’을 단독으로 수록하였다.
⑤	비상교육 (국어 상)	6. 예술 감상의 즐거움	중단원 ‘(1) 봉산탈춤(양반춤)’을 단독으로 수록하였다.
⑥	신사고 (국어 상)	6. 소통의 힘	중단원 ‘(1) 공연 예술과 한판 놀기’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양반춤)>과 <춘향가>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중단

			원 ‘(2) 문학이 건넌 선물’에 소단원으로 현대 희곡 <결혼>과 소설 <만세전>이 수록되었다.
⑦	유웨이 (국어 하)	2. 전통의 향기	중단원 ‘(3) 민속극의 소통과 표현’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양반춤)>만 단독으로 수록되었다.
⑧	창비 (국어 상)	4. 한국문학의 전통과 계승	중단원 ‘(2) <봉산탈춤(미알춤)>’을 수록하였다.
⑨	천재 (김대행) (국어 하)	2. 표현 방식 탐구하기	중단원 ‘(3) 공연 예술의 표현 방식’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양반춤)’과 ‘강도근 창 흥부가’를 수록하였다.
⑩	천재 (박영목) (국어 상)	5. 문학과 전통	중단원 ‘(3)에 봉산탈춤(양반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더 입을 거리’에 ‘왕의 남자’ 시나리오 일부를 수록하였다.
⑪	해냄에듀 (국어 상)	7. 우리 문학의 숨결	중단원 ‘(2) 우리의 공연 예술’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미알춤)>을 수록했다.

<봉산탈춤>과 연계된 수록 작품을 검토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

- ① <봉산탈춤>만 단독으로 수록한 경우
- ② <봉산탈춤>을 단독으로 수록하고 교과서 활동에 다른 작품과 연계시키는 경우
- ③ 대단원 아래 중단원에 <봉산탈춤>과 다른 작품을 함께 수록한 경우
- ④ 대단원에 <봉산탈춤>을 비롯해서 극문학 제재로만 수록한 경우

10학년 국어 교과서 중 <봉산탈춤>이 수록된 11종 교과서에서 ① <봉산탈춤>만 단독으로 수록한 교과서는 ‘비상교육’, ‘창비’, ‘미래엔’, ‘유웨이 중앙’, ‘해냄 에듀’로 5종이다. 반면에 ② <봉산탈춤>을 단독으로 수록하고 교과서 활동에서 다른 작품과 연계시키는 경우는 ‘교학사’, ‘더 텍스트’, ‘천재교육(박영목)’, ‘디딤돌’ 4종이다. ‘교학사’는 생각 넓히기에 전통극 <춘풍의 처>를, ‘더 텍스트’는 생각 모으기에 현대 희곡 <결혼>을, ‘천재교육(박영목)’은 더 읽

을 거리에 <왕의 남자> 시나리오 일부를, ‘디딤돌’의 경우는 중단원 ‘(1) 봉산탈춤(양반춤)’을 수록하고, 심화 학습에 인형극 <꼭두각시 거리> 일부를 각각 수록하면서 <봉산탈춤>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③ 대단원 아래 중단원을 모두 극문학 제재로 수록한 경우는 ‘신사고’와 ‘천재교육(김대행)’ 2종이었다. ‘신사고’는 중단원 ‘(1) 공연 예술과 한판 놀기’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양반춤)>과 <춘향가>가 수록되었다. ‘천재교육(김대행)’은 중단원에 <봉산탈춤>과 <강도근창 흥부가>를 같이 수록하면서 공연 예술에 대한 표현 방식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었다. 끝으로 ④ 대단원에 <봉산탈춤>을 비롯해서 극문학 제재로만 수록한 경우도 있었다. 교과서는 ‘디딤돌’과 ‘신사고’ 2종이다. ‘디딤돌’은 중단원 ‘(1) 봉산탈춤(양반춤)’을 수록하고, 심화 학습에 인형극 <꼭두각시 거리> 일부를 수록했다. 또한 중단원 ‘(2)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를 수록하였다. ‘신사고’는 중단원 ‘(1) 공연 예술과 한판 놀기’에 소단원으로 <봉산탈춤(양반춤)>과 <춘향가>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중단원 ‘(2) 문학이 건넌 선물’에 소단원으로 현대 희곡 <결혼>과 소설 <만세전>이 수록되었다. 가면극 <봉산탈춤>과 현대 희곡을 같이 수록하면서 극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었다.

3. 현행 교육 현황의 문제점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단원 검토를 ‘성취 기준’과 ‘교육 내용의 연계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우선, 16종 교과서 중 11종 교과서가 <봉산탈춤>을 통해 가면극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때 교육 내용을 위해 교과서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은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 ‘제6과장 양반춤(7종)’과 ‘제7과장 미얄춤(4종)’이었다. 물론 이 두 과장은 <봉산탈춤> 전체 과장 중에서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극문학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봉산탈춤>을 교과서 제재로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해진 교과서만큼 교육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각 출판사들이 가면극 제재로 <봉산탈춤>을 편중되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수록된 <봉산탈춤>의 교육적 가치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제재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앞서 최미숙이 말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재 선정의 원칙’을 통해 살펴보면,

<봉산탈춤>은 학습 목표에 적합한 제재이면서 가치관, 민족적인 정서, 문학적 인 측면 등에서도 적합한 제재이다. 다양한 민속극을 교과서에서 만나는 것은 교과서 지면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면극 교육의 다양화를 논하는 것은 무 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한 <봉산탈춤>이 다양한 민속극을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가 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설계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봉산탈춤> 하나의 제재를 가지고 [10-듣-(4)] ‘공연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하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성취 기준은 [10-문-(5)] ‘수용과 전송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 한다.’와 [10-말-(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와 연계해 서 지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취 기준 [10-듣-(4)]의 담화의 수준과 범 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 판소리나 가면극

공연예술의 종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언어적 표현을 주된 매개로 하는 연극이 적당하다. 특히 판소리나 가면극은 우리 전통의 언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언어 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74)

이것으로 보아 <봉산탈춤> 하나의 제재를 통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보다는 <봉산탈춤>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는 판소리나 무대극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재와 함께 단원을 구성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몇몇 교과서들은 <봉산탈춤>을 단독으로 구성하고 교과서 활동을 통해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시도하고는 있었지만 미흡해 보였다. ‘신사고’나 ‘천재교육(김대행)’처럼 중단원 아래 소단원으로 가면극과 판소리를 함께 수록해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7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②』, 2008, 30쪽.

IV. <봉산탈춤> 교수-학습 설계와 실제

본 장에서는 민속극 수업을 할 때, 교사가 민속극과 관련한 문학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다. 교육 내용의 대상이 되는 <봉산탈춤> 제재가 구비문학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그 점과 관련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민속극을 배우고, 이해·감상한 후, 창조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활동 중심, 과정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학습자 중심 교육’⁷⁵⁾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식은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 학습자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교수 환경은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면서 학습자에게 문제 상황을 제공하고, 문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⁷⁶⁾이 때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점검하는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교사의 안내와 도움 없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교육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헌재 외⁷⁷⁾는 ‘국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란 학습자들이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들의 생활 문제를 교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활동과 학습자들의 활동이 균형을 유지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학습자 개인을 중시하고, 학습자가 가지는 흥미와 관심을 학습자의 창조적 지성, 내재적 성장력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의 자연스러

75) 학습자 중심교육과 유사한 뜻을 가진 여러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곧, ‘아동 중심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학생 중심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는 학습자 중심교육은 그것이 추구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 중심’은 유아와 어린이가 같은 특정 연령대에 주목(권낙원, 2001)하는 경우이고, ‘수요자 중심’은 학습자를 고객으로 간주하는 경영학적 관점(손승남, 2004)에서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은 학습자를 제도권교육에서 한정해서 보는 경우(길형석, 1999)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인 아동, 수요자, 학생은 결국 모두 학습자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학습자 중심교육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강인애·주현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09, 3쪽.

76) 박숙희 외,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7, 369쪽.

77) 신헌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2002, 15쪽.

운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했다. 이처럼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 방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야 하므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가 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을 통해서는 언어 표현의 특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산탈춤>은 가면극으로 재담과 노래, 춤,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예술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성된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 직접 전달된다. 게다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공간에서 공연되어진다. 그 공간은 민중들의 삶과 가치관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현장성을 동반한 언어 표현이야말로 생동감 있는 언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표현의 특징과 공연 예술적 특징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봉산탈춤>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⁷⁸⁾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본장에서는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 우선,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속극을 수업할 수 있는 학습 모형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본고에서 다룰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민속극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구현하는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외면한 채 이루어질 수는 없다. 다만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학습 활동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봉산탈춤> 교수-학습 지도안을 3차시로 마련하고자 한다.⁷⁹⁾

78) 한옥근은 ‘희곡교육의 중심 원리는 공연성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했다. ‘공연성을 드러내는 요소에는 갈등을 내포한 희곡의 구성을 중심으로 극적 인물의 행동, 극적 언어의 운용, 주제를 유용하게 전달하기 위한 공연 기법 등 희곡의 전반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옥근, 『희곡교육 방법론』, 새문사, 2002년, 88쪽. 한옥근이 말한 공연성의 요소는 민속극 채록 대본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본에 드러난 언어의 운용방식은 공연의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언어의 표현 특징을 담고 있는 공연 예술의 측면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79)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봉산탈춤>의 학습 지도안은 3~4차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3차시 학습 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1. 학습자 중심 교육의 원리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지식의 개별적·사회적 구성을 강조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토대 위에(지식론), 학습자가 주체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학습자론), 상황적이고 협력적 학습 환경에서의 체험적, 성찰적 학습을 통해 개별적 의미구성이란 학습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학습론), 이 때 교사는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교사론)⁸⁰⁾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정의를 기반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1>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학습원칙⁸¹⁾

4가지 영역에 따른 학습자 중심 학습 원칙		세부적 내용
지식론	1. 체험을 통한 개별적 의미 구성	· 경험적, 참여적 학습을 통한 개별적 지식(의미) 구성 · 학습자의 선수지식, 관심, 배경 등 개별성을 존중
	2. 실제적 성격(authentic)과제	·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상황과 실제성을 고려한 과제 제시 · 내용과 방법론에서의 통합적 접근
학습론	3. 성찰적 학습	· 자신의 학습을 되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고 및 활동
	4. 자기 주도적 학습	· 평생 교육 시대에 필요한 능력 · 스스로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해가는 능력
	5. 협동 학습	·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 보완, 재구성 ·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신뢰적 관계 형성
학습자론	6. 학습의 주체자	· 학습의 권한(Power)과 책임(Responsibility)을 가지고 학습 전 과정을 주도 ·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교사론	7. 학습의 촉매자 / 촉진자	· 학습의 조력자이자 코치 · 학습자들과 상호의존적 / 상호협력적인 새로운 관계 형성

위 표를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학습 원칙을 4가지 영역에 걸쳐 총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80) 강인애·주현재, 위 논문, 14쪽.

81) 위 논문, 14쪽.

지식론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체험을 통해 개별적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고, 학습의 상황과 실제성을 고려한 과제를 제시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론 영역에서는 ‘성찰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협동 학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습자론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평가까지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책임도 학습자에게 있다. 교사론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상호 신뢰적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고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습원칙’을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이 <봉산탈춤>과 같은 가면극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수-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우선 교사는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교사를 통해 전달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민속극의 본질은 무엇인지?, 민속극을 학습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봉산탈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면극 공연의 원리를 알고, 내면화된 장르로서 가면극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이후에 다른 가면극을 학습할 때도 이러한 원리는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교육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민속극 수업 모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연극 관련 교수-학습 모형으로 ‘협동학습 모형’이나 ‘역할 놀이와 관련된 모형’이었다. ‘협동학습 모형’은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를 소집단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 방법⁸²⁾으로 연극과 관련된 수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습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역할 놀이와 관련된 모형’은 학습 활동에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역할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⁸³⁾ 협동

82) 신한철,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탐구」, 개선어문연구 22호, 2004, 재인용.

83) 신현재 외, 위 책 66쪽.

학습 모형과 역할 놀이 모형은 각각 따로 적용되기 보다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할 놀이 모형 안에서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고, 협동학습 모형 안에서 필요하다면 역할 놀이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모형으로는 가면극 수업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을 제시한 오판진⁸⁴⁾은 연행⁸⁵⁾ 이론가인 리처드 셰크너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극 관련 교수-학습 모형인 ‘역할놀이 교수·학습 모형’과 ‘역할 수행 교수·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가면극 연행 체험 교육을 위한 총괄적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셰크너의 연행 이론에서 제시한 연행의 요소 7가지⁸⁶⁾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도 밝혔듯이 이 모형은 가면극 인물에 대한 연행 체험의 거시적인 절차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단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엔 그 수업 내용이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면극 수업을 위한 모형 제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 수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은 전체 7과장 중 일부 과장만 수록이 되고, 그 수록된 과장 역시 전문을 다 수록하지 않고 생략해서 수록한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봉산탈춤> 일부 과장만 학습한다고 해도 <봉산탈춤> 전체 과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봉산탈춤>과 같은 가면극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통 민속극에 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관심을 갖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가 필요하다.

84) 오판진, 「가면극 연행 체험 연구-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교육 박사학위 논문, 2012.

85) ‘연행’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연출하여 행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연극적인 행동을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오판진도 이와 유사하게 논문에서 사용된 연행을 개념을 공연예술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면극의 측면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가면극에서 연행은 신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 또한 연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행의 개념 속에는 관객과 배우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연행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연행자와 이를 지켜보는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을 주고받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체험 뿐 아니라 관객으로서의 체험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판진, 위 논문. 19~23쪽.

86) 연행의 요소 7가지는 ‘트레이닝, 워크숍, 리허설, 워밍업, 공연, 마무리, 여파’를 말한다. 오판진, 위 논문 30쪽.

2. <봉산탈춤> 교수-학습 지도안

앞서 검토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적용해, 민속극 수업 모형에서 다루고 있는 협동 학습 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했다. 그리고 기록문학의 측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전달 위주의 지도안이 아닌 구비문학의 특징을 반영하고, 공연 예술로서 연행의 측면을 고려한 지도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에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위해 사용한 제재는 교과서 수록 빈도수가 높았던 제6과장 양반춤이다. <봉산탈춤>이 수록된 교과서 11종 중 7종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작품이라 전체 과장 중 대표할 만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천재 국어(박영목)교과서 국어(상)⁸⁷⁾에 수록된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을 국어 교과서의 제재로 하고, 현행 교육과정이 반영된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3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했다.

1) 제재 선정의 이유와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 조상들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공연 예술을 즐겼고, 이것은 하나의 독창적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전통’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에 적용하여 한국 문학의 생산과 수용·전승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가면극 <봉산탈춤>을 통해 공연 예술이 갖는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의 특징이 우리 공연 예술의 특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원의 교수-학습에서 유의할 점은 학습 내용이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87) 천재(박영목) 국어 교과서를 지도안 작성의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10-듣-(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를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와 ‘[10-말-(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는 성취기준과 연계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영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과서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 입을거리’에 <왕의 남자> 시나리오를 수록해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 교과서 구성으로 <봉산탈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봉산탈춤>에 반영된 언어 표현의 특징과 공연 예술적 특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가면극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방에서 공연해 오던 가면극으로 몸짓, 춤, 재담, 노래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 예술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대본은 1960년에 황해도 출신의 두 공연자가 말로 한 것을 받아 적은 채록본이다. 한국의 전통 민속극인 가면극은 현대 연극처럼 배우가 대본을 암기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봉산탈춤>을 출 줄 아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연기하는 것으로 채록할 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구비문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면극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제시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찾고, 그것이 공연예술로 보여질 때,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봉산탈춤>이 공연되는 동영상이나 현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작품을 단순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교사의 편의를 위해 매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매체를 통해 학습자가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예술의 특징을 인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2) 학습 목표

교과서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설정했다.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각 교과서들이 성취 기준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따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성취 기준은 학습자들이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봉산탈춤>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그 감상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①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② 공연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 ③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학-(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10-듣-(4)] 공연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10-말-(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를 적용해서 설정한 것이다.

① [10-문학-(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을 비교하기, 문학적 전통의 맥락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10-듣-(4)] ‘공연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연행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 이해하기,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 이해하기,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 이해하기’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10-말-(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작품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부분 찾기,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리하기, 발표 내용과 어울리게 시청각 보조 자료 제시하기,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공유하기’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 학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 학년의 관련 성취기준도 살펴면서 학습 목표와 연결시켜야 한다.⁸⁸⁾ 또한 이후에 ‘문학’을 선택 과목으로 학습할 때 좀 더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따라서 10학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이 선택과목으로 문학을 만날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⁸⁹⁾

88) 전 학년과의 연계성

-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8-문학-(4)]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찾아 읽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9-문학-(1)]
-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 [9-문학-(2)]

89)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의 목표

-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 나. 문학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여,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
- 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학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차시별 교수-학습 절차

‘차시별 교수-학습 절차’는 3차시로 이루어질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틀을 제공한 것이다. 수업 단계는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차시별 세부적 학습 지도안은 아래 표를 활용해서 작성하려고 한다.

<표12> 차시별 교수-학습 절차

순서	과정		교수-학습 내용	시간
1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상태 파악 · 전시 학습 확인 · 학습 목표 제시 	5분
2	전개	함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학습 문제 발표하고 질문 받기 · 학습 문제를 통해 발견한 의미 공유하기 	35분
3		본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나누기를 통해 얻은 선행 지식으로 작품 탐색 ·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품 이해 · 학습 문제 해결 방법 찾기 	
4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하기 - 학습 문제 해결 정도를 파악해 보기 · 정리하기 - 본 차시 학습의 의의와 가치 확인하기 ·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10분

도입은 학습자의 수업 상태를 파악하고, 전시 학습을 확인한 후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전개는 ‘함께 나누기-본문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함께 나누기’는 수업 전에 각 모둠에게 주어진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과제 내용은 모둠별 협동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발표를 통해 다른 모둠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학습’은 모둠별 과제를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학습하는 활동이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어야지 지식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는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한 후, 본 차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를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함께 나누기’ 단계에서 동료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리 단계에서는 목표 학습에 도달했는지 확인 하는 교사 평가 정도로 그쳐도 무관하다.

각 차시별 수업 운영 방식은 3차시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학습 내용은 1차시

에는 ‘가면극에 대한 배경 지식 탐색’, 2차시에는 ‘언어 표현의 특징 이해’, 3차시에는 ‘공연 예술적 특징 이해’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인 수업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각 차시별 수업 운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1차시 수업 운영 - 가면극에 대한 배경 지식 탐색 (전승과 연행의 방법 이해)

1차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면극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 게 좋다. 학습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교사가 학습자들이 가면극에 대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적절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수업의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1차시는 ‘가면극에 대한 배경 지식 탐색 단계’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을 마련하는 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사전에 이루어진 모듈별 조사와 수업 시간에 보게 되는 <봉산탈춤> 공연 사진이나 공연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가면극 전승자들의 연행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차시 교수·학습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차시 교수·학습 계획안

단원	5. 문학과 전통		차시	1차시	
학습 주제	(3) 봉산탈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학습 과정	학습내용	교수·학습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상태 파악하기 - 수업 전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 참고(가면극에 대한 인식 조사) ▷ 출석 상태 수업 준비 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면극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점검한다. ▶ 인사하고 수업에 임한다. 	5분	설문 조사 자료
	학습	▷ 본시의 학습 목표를 제	▶ 교사가 제시한 학습 목		

	목표 제시	시한다.	표를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전개	함께 나누기	▷ 본문 학습에서 이루어질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 동영상과 각 과장별 사진 자료를 감상하게 하고 공연 예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공연의 특징을 생각하며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감상한다.	30분	해당 부분 동영상 자료 제시, 학습지 (활동지)
		▷ 모둠별 활동 (4개조로 이루어진 모둠별 활동) · 1조: 가면극의 특징 파악 · 2조: <봉산탈춤> 2, 3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 · 3조: <봉산탈춤> 4, 5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 · 4조: <봉산탈춤> 6,7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	▶ 공연을 감상한 내용을 토대로 모둠 활동을 한다.		
	본문 학습	▷ 206쪽 ‘봉산탈춤’ 제6과장인 ‘양반춤’과장에 나온 탈과 인물의 모습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도록 한다.	▶ 양반들이 희화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교과서
정리	학습 내용 정리	▷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10분	내용 정리 PPT
	평가하기	▷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다.		
	차시 예고	▷ 과제 :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표현의 특징을	▶ 과제와 차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해 온다.	한다.		
--	--	---------	-----	--	--

1차시의 학습 목표는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이다. 이 목표 아래 이루어질 주요 학습 내용은 가면극에 대한 배경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가면극이 어떻게 전승되고 연행되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다.

교과서 본문 학습을 하기 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했다. 학습자들이 가면극에 대해 갖는 관심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줄 수 있다.

가면극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학년 ()반 이름 ()

▶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보세요.

민속극에는 가면극, 꼭두각시놀음, 발탈이 있습니다. 특히 가면극은 탈춤, 탈놀이라고도 불리는데 얼굴에 탈을 쓰고 전통 악기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놀았던 연극의 일종입니다. 가면극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행해져온 전통 공연 예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가면극의 종류는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강령탈춤, 하회별신굿놀이, 강릉관노가면극, 고성오광대, 진주오광대, 수영야류, 동래야류, 북청사자놀음 등이 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가면극을 공연으로 또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나요? ()

- ① 3번 이상 ② 2번 이상 ③ 1번 이상 ④ 본 적 없음

2. 중학교에서 가면극과 관련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었나요? () ①,②,③번 중에 없다면 ④번 기타에 수업 내용을 적으세요.

- ① 교사의 설명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② 친구들과 배역을 정해서 역할극을 만드는 협동학습을 했다.
 ③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동영상 통해 감상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④ 기타 ()

3.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 수록된 가면극 수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①,②,③번 중에 없다면 ④번 기타에 원하는 수업의 내용을 적으세요. ()

- 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교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수업이 좋다.
- ② 모둠끼리 역할을 정해서 한 편의 역할극을 완성하는 협동학습 수업이 좋다.
- ③ 교과서만 학습하지 말고 교과서 내용을 공연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학습이 좋다.
- ④ 기타 ()

4. 역할극을 통한 협동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역할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

- ①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관객으로 보는 것에 만족한다.
- ③ 소품을 준비하는 진행만 한다.
- ④ 역할극 수업은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않는다.

5. 가면극 공연은 특별한 무대가 없어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석과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관람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찾아보세요. () ①,②,③번 중에 없다면 ④번 기타에 수업 내용을 적으세요.

- ①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어서 배우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 공연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 ② 배우가 나를 공연 장소에 끌어들여 연기를 시킬까봐 불안해서 공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것 같다.
- ③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공연을 즐기기 어려울 것 같다.
- ④ 기타 ()

사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수업 시작할 때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가면극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를 파악하게 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 본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기’에서는 가면극에 대한 기초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과 각 과장별 사진 자료

를 감상하게 한다. 그리고 모듬 활동을 통해 감상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교사가 제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참고도서를 제시해서 미리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각 모듬별로 스마트폰 한 개를 준비하게 해서 자료를 찾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료 찾기 시 참고할 만한 자료 검색 사이트와 참고도서 목록을 모듬 활동지에 제시한다.

모듬 활동지

※ 활동 내용 : 가면극에 대한 배경지식 탐색

※ 다음에 제시된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각 모듬별 과제를 수행합니다.

<봉산탈춤> 자료 검색 관련 사이트 목록 및 대본

봉산탈춤보존회 <http://www.bongsantal.com>

우리문화연구회 <http://www.cafe.daum.net/umun>

디지털 한국학 <http://www.koreandb.net>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전경옥, <봉산탈춤>, 현암사, 2004.

이강순 외, <봉산탈춤>, 교육과학사, 2008.

모듬	과제 내용
1모듬	가면극의 특징을 파악한다. (동영상 자료를 통해 공연 방법과 공연 장소를 중심으로 적는다)
2모듬	<봉산탈춤> 2,3 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주어진 자료를 통해 각 과장의 내용과 주제를 예측해 본다.)
3모듬	<봉산탈춤> 4,5 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주어진 자료를 통해 각 과장의 내용과 주제를 예측해 본다.)
4모듬	<봉산탈춤> 6,7 과장의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주어진 자료를 통해 각 과장의 내용과 주제를 예측해 본다.)

<예시 답안>

모듬 구성원	1모듬
활동 내용	가면극의 특징을 파악한다.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가	공연장소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상 중 하
나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이 언어를 사용한다.	상 중 하
다	춤과 노래(가무적인 부분), 연기(연극적인 부분)가 어우러진 공연이다.	상 중 하
라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봉산탈춤)의 구비문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조사 내용 정리하기	교사는 PPT를 통해 가면극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준다.	

학습자들은 모둠 활동이 끝났으면 모둠별 발표를 통해 각자 마련한 배경지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모둠별 발표 과제 (조)		
모둠 구성원		
과제 내용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조사 내용 정리하기		

<교사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과제 완성도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준비해서 질문에 답을 했는가?	상 중 하
구성원 참여도	모둠 구성원 모두가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완성했는가?	상 중 하
정리, 발표 정확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리하고 정확한 발표로 전달했는가?	상 중 하

교사는 학습자들 간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오고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준비한 과제 발표가 끝나면 부연 설명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준다. 교사가 준비한 내용의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짚어주는 것도 좋다. 과제 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평가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지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과서를 펴고 ‘본문 학습’을 진행한다. 교과서에서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탈을 보고 어울리는 별명을 붙이면서 본문 학습에서 만나게 될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탈을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다. 이 때 사용하는 영상은 ‘봉산탈춤보존회’에서 제공한 정기 공연 CD를 미리 준비해서 활용한다.



<사진 3>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과장에 나온 탈과 인물의 모습⁹⁰⁾

본문 학습을 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탈과 인물의 모습을 보고 성격을 미리 파악하게 한다. 별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탈에 생김새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정리단계에서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주고, 학습한 내용은 질문을 통해 답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평가를 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수업을 예고하고 모둠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 내용은 <봉산탈춤> 본문에 드러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2) 2차시 수업 - 언어 표현의 특징 이해

(가면극 전승자의 대사와 연기의 특징 파악)

2차시 수업은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주된 수업 내용이다. 가면극 전승자의 연기와 대사를 통해 가면극에 나타난 언어 표현 특징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공연 예술의 소통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모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차시 교수·학습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2차시 교수·학습 계획안

단원		5. 문학과 전통		차시	2차시
학습 주제		(3) 봉산탈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학습 과정	학습내용	교수·학습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상태 수업 준비 상태 점검 ▷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가면극과 관련한 개론적인 내용을 짚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수업에 임한다. ▶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떠올린다. 	5분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제시한 학습 목표를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90) 박영목, 천재 고등국어(상), 2011년, 206쪽.

	함께 나누기	▷ 모듈별 과제를 발표 시킨다. (과제 내용 :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표현의 특징을 조사해 온다.)	▶ 언어 표현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전개	본문 학습	▷ 시조 읊기, 글짓기, 파자 놀이를 통해 지식인 계층인 양반들의 무지함이 폭로됨을 안다.	▶ 양반들의 무지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한다.	30분	교과서, 해당 부분 동영상 자료
		▷ 말뚝이가 양반과 함께 시조를 읊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취발이에 대한 양반들의 문초와 퇴장이 드러난(교과서 212:16~213:16)부분을 함께 읽고 내용을 정리한다. ▷ 상인 계층인 취발이를 잡아들여 문초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파악한다.	▶ 말뚝이가 양반과 함께 시조를 읊는 부분에서는 양반과 말뚝이의 신분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암시됨을 이해한다. ▶ 배역을 맡은 학생은 인에 공감하며 읽고, 배역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은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며 듣는다. ▶ 자신의 사욕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양반들의 탐욕을 파악한다. ▶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10분	내용 정리 PPT
	평가하기	▷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다.		
	차시 예고	▷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학습한다는 차시 예고를 한다. ▷ 과제 : 앞서 배운 내용	▶ 공연 예술적 특징을 학습한다는 차시 내용을 확인하고, 과제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을 토대로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모듬별로 조사해 온다.		
--	---	--	--

먼저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누기’에서 지난 시간에 내 준 모듬별 과제를 확인한다. 가면극 전승자의 대사와 연기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대사에 담긴 언어 표현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모듬별 과제의 주된 내용이다. 탈춤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는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정답을 찾아내는 데 급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봉산탈춤>에 드러난 표현을 느끼면서 본문을 읽는 재미를 갖게 해주면 된다.

모듬 활동지

※ 활동 내용 :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 특징 이해

※ 각 모듬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을 읽고, 주어진 과제 내용을 해결합니다.

모듬	과제 내용
1모듬	·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사한다.
2모듬	· 관객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상적인 언어를 낮설게 느껴지도록 하는 표현을 찾아본다.
3모듬	· 현장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
4모듬	· 관객과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나누는 생동감 있는 언어를 찾아본다.

<예시 답안>

모듬 구성원	1모듬	
과제 내용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사한다.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가	양반의 위엄과 말투이의 조롱	상 중 하

나	양반의 호통	상 중 하
다	말뚝이의 변명	상 중 하
라	양반의 안심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담과 재담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 재담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조사 내용 정리하기	교사는 PPT를 통해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적 표현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준다.	

모둠별 발표 과제 (조)

모둠 구성원		
과제 내용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조사 내용 정리하기		

<교사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과제 완성도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준비해서 질문에 답을 했는가?	상 중 하
구성원 참여도	모둠 구성원 모두가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완성했는가?	상 중 하
정리, 발표 정확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리하고 정확한 발표로 전달했는가?	상 중 하

교사는 발표 내용을 확인한다. 모듬 활동 과제를 통해 양반춤에 드러난 재담의 구조와, 낯설고 특별한 언어로 표현되는 언어유희, 현장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즉흥적인 언어, 관객과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나누는 생동감 있는 언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미리 과제를 내 주는 이유는 정답을 찾아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읽고 수업 내용을 모듬끼리 미리 점검하고 살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은 양반에 대한 풍자가 중심이 되는데 이 풍자를 하는 인물은 하인인 말뚝이다. 말뚝이의 재담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데 5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담과 재담 사이에는 ‘쉬이’를 두어 재담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다. 이 ‘쉬이’는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대사로 전환되는 부분을 알리기도 한다. 그리고 재담이 끝날 때는 ‘춤’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채록 대본을 읽고 이와 같은 재담의 구조와 ‘쉬이’와 ‘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봉산탈춤>의 공연 예술적 언어 표현은 극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며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드러난다. 연기자는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언어유희나 즉흥적인 언어와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언어유희)

말뚝이 재담2 (담배와 흰화)에서 관객이 실제로 돈을 빌려 달라거나 담배를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기자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즉흥적인 언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생동감 있는 언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찾으면서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적 표현이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근대적인 서민 의식의 성장과 무관

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양반과장의 등장인물 말뚝이가 양반의 무능력과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조롱하고 풍자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한 서민 의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산탈춤>에 드러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급한 과자 놀이를 통해 드러나는 양반들의 무식함이나,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에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짚세기 앞총은 형겅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멸못이라.**

신흥 중산층인 취발이를 잡아들이기로 한 양반이 결국 뒷돈거래를 통해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은 당시 사회상을 엿보게 한다.

정리단계에서 교사는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주고, 학습한 내용은 질문을 통해 답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평가를 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수업을 예고하고 모둠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 내용은 본문을 미리 읽고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3) 3차시 수업 - 공연 예술의 특징 이해

(우리의 전통 공연 예술과 무대 공연 예술의 차이 파악)

3차시는 공연 예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주된 내용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는 학습목표와 연결시켜야 한다. 즉, <봉산탈춤>을 통해 이해한 공연 예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민속극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2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을 떠올리며 3차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봉산탈춤>의 언어적 표현은 공연 예술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공연 예술과 무대 공연 예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봉산탈춤>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천재 박영목 고등국어(상)에는 ‘왕의 남자’ 시나리오가 ‘더 읽을거리’로 제시가 되었다. 전통 공연 예술의 특징이 영화 시나리오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3차시 교수·학습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3차시 교수·학습 계획안

단원		5. 문학과 전통		차시	3차시
학습 주제		(3) 봉산탈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학습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상태 수업 준비 상태 점검 ▷ 지난 시간에 배운 <봉산탈춤>에 드러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수업에 임한다. ▶ 학습 내용을 떠올린다. 	5분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제시한 학습 목표를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전개	함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 시킨다. (과제 : <봉산탈춤> 본문을 읽고 공연 예술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한다. 	30분	교과서, 무대극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본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본문을 통해 공연 예술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한다. ▷ 무대극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공연 예술의 특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 (더 읽을거리)에 나오는 '왕의 남자' 시나리오를 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이해한다. ▶ 공연 예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고, <봉산탈춤>에 드러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린다.	있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10 분	내용 정리 PPT
	평가 하기	▷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다.		
	차시 예고	▷ 수행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 : 주어진 무대극의 내용을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특징이 드러나게 개작한다.)	▶ 과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언어 표현의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학습목표를 제시한 후, 공연 예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누기’에서 모듈별 과제를 발표하도록 시킨다.

모듈 활동지	
※ 활동 내용 : <봉산탈춤>에 나타난 공연 예술적 특징 이해	
※ 각 모듈은 <봉산탈춤>을 읽고 공연 예술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조사해 보세요.	
모듈	과제 내용
1모듈	연기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 없어지는 부분을 찾아본다.
2모듈	공연을 하는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가 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3모둠	관객이 능동적으로 극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
4모둠	대사 외에 춤과 노래가 극의 진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본다.

<예시 답안>

모둠 구성원	1모둠	
과제 내용	연기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이 없어지는 부분을 찾아본다.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상 중 하
나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상 중 하
다	말뚝이 재담2(담매와 흰화)에서 관객이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담배를 사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연자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상 중 하
라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은 한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생동감이 있다.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공연 예술과 무대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우리 공연 예술이 현대에 맞게 계승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조사 내용 정리하기		

모둠별 발표 과제 (조)

모둠 구성원		
과제 내용		
조 사 자	조사 내용	동료 평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질문 마련하기		
조사 내용 정리하기		
<교사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과제 완성도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준비해서 질문에 답을 했는가?	상 중 하
구성원 참여도	모둠 구성원 모두가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완성했는가?	상 중 하
정리, 발표 정확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리하고 정확한 발표로 전달했는가?	상 중 하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설명한다. 즉, 객석과 무대, 관객과 배우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무대극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이해해야 한다.

무대극의 극중 인물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없다. 그러나 탈춤이나 판소리와 같은 전통적 공연 예술에서 극중 인물은 관객이나 악공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극이 진행이 된다. 말뚝이 역시 극을 구경하고 있는 관객들과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나눔으로써 극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때 관객과 나누는 대화는 생동감 있는 언어가 된다.

이러한 공연 예술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으로 ‘왕의 남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봉산탈춤’에서 학습한 공연 예술적 특징이 영화 시나리오 ‘왕의 남자’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는 활동이다. <봉산탈춤>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 주막 앞 - 낮
소극이 벌어지고 있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공길(녹수),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주저앉아 오줌을 싸다.
 내시 역의 칠득과 팔복, 숨어서 엿보듯 한다.
 장생(연산), 다가와 공길의 뒤에 서서 오줌을 갈긴다.
 구경꾼들 웃는다.

소극 구경꾼 1 : 저게 누군가?
 소극 구경꾼 2 : 길고 푸른 물, 장녹수
 소극 구경꾼 1 : 아~
 소극 구경꾼 2 : 자네, 그 길고 푸른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가 무슨 오리지 아나?
 소극 구경꾼 1 : ?
 소극 구경꾼 2 : 탐관오리!

김태웅 원작/최석한 각본 <왕의 남자>⁹¹⁾

앞서 본문 학습을 통해서 말뚝이가 ‘양반’을 개잘량이라는 ‘양(량)’자와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 관습을 파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일상적인 언어를 낯설게 느껴지게 하는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이다. ‘왕의 남자’에서도 ‘장녹수’와 ‘탐관오리’의 의미를 파괴하여 푸른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에 비유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판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소리도 민속극과 마찬가지로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감과 역동성을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시킨 학습이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수행 평가 과제를 제시했다.

수행 평가지
_____학년 _____반 이름:_____
<p>1. 다음은 이강백의 현대 희곡 ‘결혼’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읽고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서술하세요.</p> <p>남자 물론 그래요.(속상하다는 듯 담배를 피워 물고 상대방에게 권하며)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 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p>

91) 박영목, 천재 고등국어(상), 2011, 220쪽

도대체 지가 뭐라고 저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 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 드릴게요. 자아,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이강백의 희곡 <결혼>⁹²⁾에서

2. 위 내용에는 하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인을 등장인물로 추가해서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이 드러나도록 장면을 구성해 보세요.

<교사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공연 예술의 특징 이해하기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상 중 하
공연 예술의 특징 표현하기	공연 예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과제 완성도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완성을 했는가?	상 중 하

수행 평가의 내용은 무대극인 이강백의 희곡 내용 일부를 제시하고, <봉산탈춤>에서 학습한 공연 예술적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도록 했다. 내용을 보면, 남자가 무대 밖으로 나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고, 소품을 빌린다. 이런 과정은 <봉산탈춤>에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가능했던 장면이다. 즉, 전통 공연 예술적 특징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수행과제는 공연 예술적 특징이 드러나는 장면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쓰기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장면을 구성하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이러한 학습 활동 통해 학습자들은 <봉산탈춤>에 대한 공연 예술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극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무대극과 견주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92) 이강백, 『이강백 희곡전집1』, 평민사, 2001, 213쪽~214쪽.

7) 교수-학습의 기대 효과

<봉산탈춤> 제7과장 양반춤이 3차시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전통 공연 예술은 민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구현되며,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민층의 경험이 반영된 풍부한 언어와 역동성을 지닌 풍자와 해학의 표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적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각 차시마다 모듈별 과제를 미리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먼저 수행한 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과제의 완성도에 중요성을 두기 보다는 교사의 강의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 스스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개별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모듈 활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익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는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봉산탈춤>을 매개로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종합적인 듣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국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수용되고 전승되는지 이해하면서 우리 전통 공연 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만나게 될 다양한 전통 문학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봉산탈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가면극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를 통해 가면극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전 설문조사는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가면극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습자들의 생각 변화를 바로 읽을 수 있고, 앞으로의 수업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민속극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있는 가면극 <봉산탈춤>을 제재로 올바른 민속극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봉산탈춤>은 5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단 한 차례 빠지지 않고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봉산탈춤>이 내용이나 표현 뿐 아니라 가치관, 민족적인 정서, 문학적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검증이 된 제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0학년 고등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제재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봉산탈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지식이 마련되어야 했다. 따라서 민속극의 교육 내용을 살펴면서 ‘민속극-가면극-봉산탈춤’의 위계화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마련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봉산탈춤>이 민속극의 하위 갈래인 가면극으로 민속극을 대표할 만한 작품의 구조와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봉산탈춤>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면서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 국어 교과서에 극문학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잘 드러난 ‘제4과장 노장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얄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거쳐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봉산탈춤>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에서 <봉산탈춤>은 듣기, 말하기, 국어지식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이것은 <봉산탈춤>을 문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만 이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봉산탈춤>은 듣기, 문법 뿐 아니라 문학 영역에서도 다뤄지고 있어 교육 내용의 변화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듣기’를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보다 교육 내용이 더 다양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의 제재는 제6과장 양반춤과 제7과장 미얄춤 뿐이었다. 두 과장은 전체 과장 중 등장인물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극문학 제재로 적합하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과장만 학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학습자들에게 <봉산탈춤> 전체 과장에 대한 이해

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봉산탈춤>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될 때 공연 예술적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산탈춤>이 교과서에 수록이 될 때는 기록문학의 형태로 수록이 되지만 그것은 엄연히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봉산탈춤>은 가면극으로 재담과 노래, 춤,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봉산탈춤>에 드러난 공연 예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만 다른 가면극을 학습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봉산탈춤>은 민중들 삶의 현장에서 생성된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 직접 전달된다. 게다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공간에서 공연되어진다. 그 공간은 민중들의 삶과 가치관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현장성을 동반한 언어 표현이야말로 생동감 있는 언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표현이 공연 예술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봉산탈춤>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원리’가 반영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적합한 모형을 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봉산탈춤>을 수업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은 대부분이 연극 관련 교수-학습 모형으로 협동학습 모형이나 역할 놀이와 관련된 모형이었다. 그리고 오판진의 ‘가면극 연행 체험 교육을 위한 총괄적 교수·학습 모형’이 있었다.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습자 활동을 반영한 모형이었다. 수업 모형의 검토를 통해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었다.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안은 <봉산탈춤> 전체 7과장 중 제6과장 양반춤을 제재로 3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성했다. 제6과장 양반춤은 교과서 수록빈도가 가장 높아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활동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으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3차시 수업 지도안에 담긴 활동은 대부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의 활용도 첨가시켰다.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도안을 마련하다 보니 학습자의 과제 부담에 대한 걱정과,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했다. 교사가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력자 역할을 잘 해준다면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고에서 제시한 <봉산탈춤> 수업 지도안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민속극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 2』, 2008.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상)』, 대한교과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②-국어-』, 대한교과서, 2001.
- 김대행,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 2010.
- 김병권, 『고등학교 국어(하)』, 더 텍스트, 2010.
- 김종철,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 2010.
- 문영진, 『고등학교 국어(상)』, 창비, 2010.
- 민형식, 『고등학교 국어(상)』, 좋은책신사고, 2010.
- 박영목,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 2010.
- 박호영, 『고등학교 국어(하)』, 유웨이중앙, 2010.
- 오세영, 『고등학교 국어(상)』, 해냄에듀, 2010.
- 우한용, 『고등학교 국어(상)』, 두산동아, 2010.
- 윤여탁, 『고등학교 국어(하)』, 미래엔컬처, 2010.
- 윤희원, 『고등학교 국어(상)』, 금성, 2010.
- 이삼형, 『고등학교 국어(상)』, 디딤돌, 2010.
- 조남현, 『고등학교 국어(상)』, 교학사, 2010.
- 한철우, 『고등학교 국어(상)』, 비상교육, 2010.

2. 단행본

-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영사, 2012.
- 김옥동, 『탈춤의 미학』, 현암사, 1994.
- 박숙희 외,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7.
- 박진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교육』, 비교민속학회, 2003.
- 서연호, 『가면극연구』, 월인, 2002.
- 신현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2002.

- 심상교, 『한국전통연희론』, 집문당, 2007.
- 이강순 · 신언경, 『봉산탈춤』, 교육과학사, 2008.
- 이강백, 『이강백 희곡전집1』, 평민사, 2001.
- 이근삼, 『연극개론』, 문학사상사, 2007.
-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0.
- 전경옥, 『민속극』,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3.
『한국 가면극과 그 주변 문화』, 월인, 2007
『탈놀이의 역사적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6.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0.
- 한옥근, 『희곡교육 방법론』, 새문사, 2002.

3. 논문

- 강인애 · 주현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09.
- 김기창, 「구비문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국제어문, 1991.
-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 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 논문, 1991.
- 김영순 · 김정은, 「봉산탈춤 노장과장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연구」,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문학의 지도방안 연구-ICT와 협동학습을 활용한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선영,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한 <봉산탈춤>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진태, 「민속극 교육론」, 한국구비문학학회 6집, 1998.
- 박진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교육」, 비교민속학회, 2003.

- 신지호, 「봉산탈춤 지도 내용 고찰」, 한국어문교육, 1991.
- 신한철,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탐구」, 개선어문연구 22호, 2004.
- 양영선, 「전통희곡 교육방법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오판진, 「가면극 연행 체험 연구-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박사학위 논문, 2012.
- 유미영, 「구비문학교육-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 과제의 분석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윤여탁,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선청어문 36, 2008.
- 이경우, 「고등학교 구비문학 교육 연구」, 교육개발, 2000.
- 이석규, 「봉산탈춤의 언어 사용 연구」, 인문언어 6, 2004.
- 이은영,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구비문학 교육-〈봉산탈춤〉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임세경, 「봉산탈춤 전승 양상」, 남도민속연구 제12집, 2006.
- 조만호, 「봉산탈춤 자료 분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7집, 2004.
- 조은정, 「봉산탈춤 교육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미숙, 「국어 교과서 제재 선정 및 수정 방안 연구」, 한국독서학회, 2000.
- 최용희, 「가면극의 비언어적 상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봉산탈춤 노장과장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최정아, 「〈봉산탈춤〉 교수-학습 방안 연구-구술성과 카니발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함성민, 「오락프로그램을 통한 전통극 교수·학습의 한 사례-〈봉산탈춤〉과 〈무한도전〉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 황해숙,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구비문학 작품 수록 양상과 적정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허지윤, 「가면극 지도 방안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ABSTRACT

<Bongsan Talchoom> Teaching-Learning Method

-With Literature in 10th Grade's Language Textbook following Korean
Language Curriculum, 2007Edition-

Shin Sun-du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s object is to confirm educational value of Bongsan Talchoom which is frequently included in 10th grade's language text book, 2007edition among other traditional topics and to make a method of learner-centered teaching-learning. Also, this study is based on comprehension that Bongsan Talchoom is involving characteristic of oral literature inheriting tradition of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n, it checks hierarchy of 'Folk drama-Mask drama-Bongsan Talchoom' and <Bongsan Talchoom> suitable for representative literature of Mask drama. This study makes a preliminary analysis about <Bongsan Talchoom> to design teaching-learning.

Based on this procedure, this study analyzes textbook to look on direction of education of <Bongsan Talchoom> included in textbook. <Bongsan Talchoom> is mask drama and a composite art which consist of joke, song, dance, and rhythm ,so learning content that should be reflected in <Bongsan Talchoom> teaching-learning method is linguistic convention and expressive feature of the performing arts. Therefore, when ones include <Bongsan Talchoom> as a topic in textbook, learning activities of these two features should be made. Because <Bongsan Talchoom> needs activ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s an oral literature, it can look for effective teaching when principle of teaching of learner-centered is

reflected.

In 7th curriculum, topic of <Bongsan Talchoom> consist of learning activities centered knowledge delivery to learn grammar, listening, speaking section. However,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2007edition, <Bongsan Talchoom> try to relate to in the realm of literature. Despite of this fact, it is hard to find various examples of learning activity, because most textbook make a listening section as standard of achievement. Thus, this study needs a method of teaching-learning reflecting linguistic convention and expressive feature of the performing arts of <Bongsan Talchoom>. It suggests the teaching guide reflecting them. The teaching guide reflects a the current curriculum' standard of achievement by using topic of 6th chapter, Yangban dance of whole 7th chapters in <Bongsan Talchoom>.

To reflect education principle with learner-centered, teachers must not lead class in a one-side style. For example, it includes to make preliminary knowledge about <Bongsan Talchoom>. If teachers suggest utilized materials, students should find materials, organize it, and announce it. Linguistic convention of the performing arts is made up through <Bongsan Talchoom>'s recording script in textbook. However, it needs to demonstrate story remaking for performance and look for mast drama's transmitter through image materials with live performance to understand the artistic feature of performance.

Also, it is good to make a learning activities related to a stage show and the Pansori story. To look on comparison with <Bongsan Talchoom> and common features can make a good attitude understanding, inheriting, and developing tradi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Then, learning activities reflect peer and teacher's evaluation at the same time due to group activitie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e teaching guide made in this study did not previewed in real class though it is made on assumption to be able to use in real class. Next, this study cannot check that the teaching guide is any related to other folk drama, because the study focuses on <Bongsan Talchoom> included in textbook frequently. However, this study expects to help teachers when they consider method

of teaching-learning able to arouse comprehension and interest about folk drama.

Key word: Folk drama, Mask drama, Bongsan Talchoom, Education of learner-centered, Linguistic convention of the Performing Arts, Expressive feature of the Performing Arts